

기본연구 2004-21

# 5대궁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방안

이원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Won-Hee Lee

A Study on Development of Cultural Tourism Products Based on the Five Royal Palaces

# 5대궁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방안

이원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 서 문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실현 목표를 수립하고 문화와 인적교류를 수반하는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가 점차 심화되어 한국 관광의 국제 경쟁력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관광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를 탈피하고 한국을 대표할 만한 관광이미지와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참여정부는 지난 해 관광정책 18대 과제 중 하나로 5대궁을 우리나라 대표 관광상품으로 집중 개발 육성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도심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을 포함한 다섯 개의 조선 궁궐이 남아있습니다. 궁궐 건축은 당대 최고의 자재와 기술로 이루어졌으며 이곳에서 시행되던 각종 의식과 무용, 음악은 당대 문화예술 역량이 종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궁궐은 왕과 왕실 뿐 만 아니라 궁녀, 노복, 관원, 군인, 내시 등 다양한 신분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생활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조선의 궁궐 가운데 창덕궁은 궁궐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배치가 탁월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5대 궁궐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조선 궁중 역사와 문화, 생활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우리나라 국가이미지와 관광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제시된 연구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국제관광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4년 12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 이 영 옥

# 요 약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5대 궁궐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차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이미지와 품질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홍보 및 관광마케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을 포함한 5대 궁궐을 대상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바운드 관광상품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존 문헌 분석, 궁궐 현지 조사, 의견 설문조사, 해외 유사사례 조사, 전문가 연구협의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 II. 현황 분석 결과

### 1. 궁궐 문화유산의 관광잠재력

궁궐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과 가치가 높다. 궁궐 건축은 당대 최고의 자재와 기술로 이루어졌으며 왕과 왕의 가족 뿐 만 아니라 궁녀, 노복, 관원, 군인, 내시 등 다양한 신분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생활하던 공간이었다. 궁궐에서 시행되던 각종 의식과 무용, 음악에는 당대 문화예술 역량이 종합되었다. 경복궁은 조선 제일의 궁궐로서 과거 한양의 도시계획과 궁궐 건축의 규모, 배치, 구성 및 짜임새를 보여주는 대표 문화유산이다. 창덕궁은 가장 오랜 기간 임금의

거쳐했던 궁궐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룬 조선 궁궐 건축의 비정형적 조형미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창덕궁 후원은 다양한 정자, 연못, 수목, 괴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다.

## 2. 고궁 관광자원화 사업의 문제점

지난 1995년 이후 고궁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궁중의례 재현 행사는 대부분 상설화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일반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국왕과 왕실 위주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당대 궁중 문화를 창조했던 건축가, 예술가, 장인, 궁녀, 관원, 내시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상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궁중의례 재현행사는 충실한 고증연구의 토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문기관과 민간단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3. 향후 궁궐 관광상품 개발방향

경복궁과 창덕궁은 서울 관광의 인기 있는 방문코스 중 하나이지만 평균 체재시간이 1시간 내외로 장시간 체류형이 아닌 단순한 경유형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궁궐 현장에서 조선 궁중의 역사, 문화, 생활상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과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중저가(中低價) 패키지 상품 위주에서 벗어나 궁궐의 가치와 품격에 걸맞는 고급화된 관광상품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궁궐의 관광이미지는 관광지 방문 결정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이미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궁궐 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개선을 위해 대외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조선 제일의 법궁인 경복궁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창덕궁을 활용한 매력적인 관광이미지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은 보완적인 연계 관광지로서 개방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안내정보와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 Ⅲ. 5대궁 관광자원화 방안

#### 1. 각 궁별 관광상품 개발방안

경복궁은 조선 제일의 궁궐로서 현재 조성 중인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을 활용하여 궁궐의 배치와 구성을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모형을 전시할 수 있다. 또한 경복궁은 세종대왕 즉위식과 같은 격조 높은 국가오례 재현을 전문화하고 왕과 왕실 뿐만 아니라 궁녀, 관원, 노복, 내시, 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궁중 생활상을 이해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창덕궁은 보존 우선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바람직하며 대조전과 회정당, 연경당, 낙선재 일곽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재현전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창덕궁과 더불어 동궐을 형성하였던 창경궁은 궁중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궁중 연회와 문화예술 공연을 감상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원형의 변형과 왜곡이 심하게 일어났던 덕수궁은 정동 일대와 원구단 등 주변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이 필요하다. 경희궁은 현존하는 5대 궁궐 가운데 가장 심하게 훼손된 궁궐로서 문화재 복원과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며 신규 복원된 전각과 서울역사박물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볼 수 있다.

#### 2. 관광시장 차별화 방안

5대 궁궐이 국제적인 관광명소이자 우리나라 대표 관광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시장에 대한 조사연구와 이들 수요자 시장 욕구에 부응하는 상품 개발 전략이 요구된다. 방한 외래객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선 궁궐의 차별성과 독특한 매력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궁궐 관광상품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편적인 인식과 인지도 개선을 위해 특정 목표시장을 한정하기 보다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에는 수요자 시장을 보다 세분화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목표시장을 설정하여 이들 수요자 욕구에 맞는 관광상품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회의 참가자를 비롯한 비즈니스 여행자 시장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홍보 효과가 높은 관광시장으로서 이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3. 관광상품 포지셔닝 전략

우리나라 궁궐은 흥미로운 볼거리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단조로우며 외국의 유명 왕궁과 비교할 때 특별한 차별성이나 매력이 없는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궁궐의 기존 이미지를 개선하고 매력 있는 관광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문 안내원과 해설매체, 이벤트 및 프로그램, 홍보기념품, 편의시설, 접근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와 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수요자의 인식 속에 우리나라 궁궐을 가치 높은 매력 자원으로 차별화시키는 포지셔닝 전략이다. 특히 5대궁 가운데 경복궁과 창덕궁은 비교적 높은 가격과 품질 수준으로 관광상품을 차별화하고 국제회의 참가자와 같은 고급 시장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볼 수 있다.

### 4. 관광홍보 효율화 방안

관광상품의 초기 도입 단계의 경우 잠재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위주의 홍보가 중요하다. 관광상품의 성장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설득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성숙 단계에서는 관광객의 과거 상품 경험을 연상시키는 홍보가 중요하다. 궁궐 이미지와 관광상품의 홍보를 위해 유명 TV, 여행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주요 언론과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주요 언론인, 기자, 작가, 여행업자 등을 초청하여 웹-투어나 궁중 문화예술 공연, 홍보영상물 시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재청,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 홍보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5. 향후 추진방안

서울 도성(都城)과 5대궁의 통합적인 관리운영 및 관광자원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독립적인 전담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부는 우선 고궁 관광자원화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 체계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궁중의례 재현행사 전문 단체 및 관련 기관, 궁중 문화예술 공연단체, 궁중 음식 및 복식 전수·연구기관의 설립과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할 것이다. 궁중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우수 여행상품이나 관광기념품을 선정하여 인증 브랜드를 부여하고 국가 차원의 홍보와 세제 지원 등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목 차

|                       |    |
|-----------------------|----|
| 제1장 서 론 .....         | 1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1  |
| 1. 연구의 배경 / 1         |    |
| 2. 연구의 목적 / 1         |    |
| 제2절 연구의 범위 .....      | 2  |
| 1. 공간적 범위 / 2         |    |
| 2. 내용적 범위 / 6         |    |
| 제3절 연구의 방법 .....      | 8  |
| 제2장 현황 분석 .....       | 9  |
| 제1절 관광여건 분석 .....     | 9  |
| 1. 자원 · 매력물 / 9       |    |
| 2. 이벤트 / 21           |    |
| 3. 기반시설 · 접근성 / 25    |    |
| 4. 관람 및 안내제도 / 26     |    |
| 제2절 관광마케팅 분석 .....    | 28 |
| 1. 수요자 / 28           |    |
| 2. 이미지 / 31           |    |
| 3. 가격 / 33            |    |
| 4. 홍보 / 35            |    |
| 제3절 분석결과 종합 .....     | 36 |
| 제3장 조사 분석 .....       | 38 |
| 제1절 전문가 설문조사 .....    | 38 |
| 1. 조사개요 / 38          |    |



|                              |           |
|------------------------------|-----------|
| 2. 조사결과 / 38                 |           |
| 제2절 해외 유사사례 분석.....          | 43        |
| 1. 조사개요 / 43                 |           |
| 2. 조사결과 / 43                 |           |
| 제3절 시사점.....                 | 53        |
| <b>제4장 5대궁 관광자원화 방안.....</b> | <b>54</b> |
| 제1절 목표 및 전략 설정.....          | 54        |
| 1. 기본목표 설정 / 54              |           |
| 2. 추진전략 수립 / 55              |           |
| 제2절 관광상품 개발방안.....           | 56        |
| 1. 기본방향 / 56                 |           |
| 2. 궁중문화 체험상품 개발방안 / 58       |           |
| 3. 서울시 연계관광코스 개발방안 / 74      |           |
| 4. 전통문화예술과 연계방안 / 77         |           |
| 5. 관광마케팅 개선방안 / 79           |           |
| <b>제5장 결 론.....</b>          | <b>84</b> |
| 1. 향후 추진방안 / 84              |           |
| 2. 결론 및 제언 / 86              |           |
| <b>참고문헌 .....</b>            | <b>87</b> |
| <b>영문요약 .....</b>            | <b>88</b> |

## 표목차

|                                      |    |
|--------------------------------------|----|
| <표1-1> 5대 궁궐의 연혁 .....               | 3  |
| <표1-2> 5대궁 지정문화재 .....               | 5  |
| <표1-3> 여행상품의 분류 .....                | 6  |
| <표2-1> 궁중의례 재현행사 추진실적 .....          | 21 |
| <표2-2> 궁중의례 재현행사 내용 .....            | 22 |
| <표2-3> 궁중 문화행사 추진현황 .....            | 23 |
| <표2-4> 5대궁 편의시설 현황 .....             | 25 |
| <표2-5> 5대궁 대중교통 접근성 .....            | 25 |
| <표2-6> 궁궐 관람시간 .....                 | 26 |
| <표2-7> 고궁 문화재안내원 활동인원 .....          | 27 |
| <표2-8> 궁궐 외국어 안내 수급 현황 .....         | 27 |
| <표2-9> 궁궐 관람인원 현황 .....              | 28 |
| <표2-10> 외래관광객 서울 내 방문지 .....         | 29 |
| <표2-11> 외래관광객 거주국별 고궁 방문 현황 .....    | 29 |
| <표2-12> 궁궐 내국인 이용자 설문 응답자 특성 .....   | 30 |
| <표2-13> 궁궐 관람요금 .....                | 33 |
| <표2-14> 관람요금 비교표 (성인1인 기준) .....     | 34 |
| <표2-15> 궁궐 관광상품 가격예시 (1인 기준) .....   | 34 |
| <표3-1> 설문 응답자 소속기관 .....             | 38 |
| <표3-2> 궁궐 안내정보와 설명에 대한 만족도 .....     | 39 |
| <표3-3> 현행 궁궐 관람요금의 적정여부에 관한 의견 ..... | 39 |
| <표3-4> 전문해설 제공시 적정한 관람요금 .....       | 39 |
| <표3-5> 궁궐 보존관리를 위한 개선사항 .....        | 40 |
| <표3-6> 경희궁 관리주체 문화재청 이관 필요성 .....    | 40 |

|                                 |    |
|---------------------------------|----|
| <표3-7> 고궁 관광자원화사업의 재현성 여부 ..... | 41 |
| <표3-8> 야간 궁궐 활용 확대에 관한 의견 ..... | 41 |
| <표3-9> 각 궁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 ..... | 42 |
| <표3-10> 궁중문화 체험콘텐츠 제안 .....     | 42 |
| <표4-1> 각 궁궐 관광상품 개발방향 .....     | 57 |
| <표4-2> 전시관 시설규모 비교 .....        | 61 |
| <표4-3> 5대 궁궐 전각의 활용방안 .....     | 72 |
| <표4-4> 서울시티투어버스 운영현황 .....      | 74 |
| <표4-5> 전통문화예술 연계자원 .....        | 78 |
| <표4-6> 목표 대상별 홍보 활동 예시 .....    | 83 |
| <표4-7> 주체별 사업 추진방안 .....        | 85 |

## 그림목차

|                          |   |
|--------------------------|---|
| [그림1-1] 5대 궁궐의 배치 .....  | 2 |
| [그림1-2] 연구의 내용적 범위 ..... | 7 |
| [그림1-3] 연구의 수행 과정 .....  | 8 |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실현 목표를 수립하고 문화와 인적교류를 수반하는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가 점차 심화되어 한국관광의 국제 경쟁력은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관광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를 탈피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관광이미지나 브랜드가 없고,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매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참여정부는 관광정책 18대 과제 중 하나로 5대궁을 우리나라 대표 관광상품으로 집중 개발·육성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 대표 관광상품이란 해당 국가의 관광이미지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대외 인지도가 높은 관광상품을 뜻한다. 또한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자원과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여 품질관광(Quality Tourism)의 모델을 제시하는 관광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상품은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뿐 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 대표 관광상품이란 잠재 수요자 시장이 보편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는 관광상품으로서 관광의사 결정과정에서 구매할 확률이 높은 관광상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여행사나 중개업체,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관광상품을 국가적인 대표 관광상품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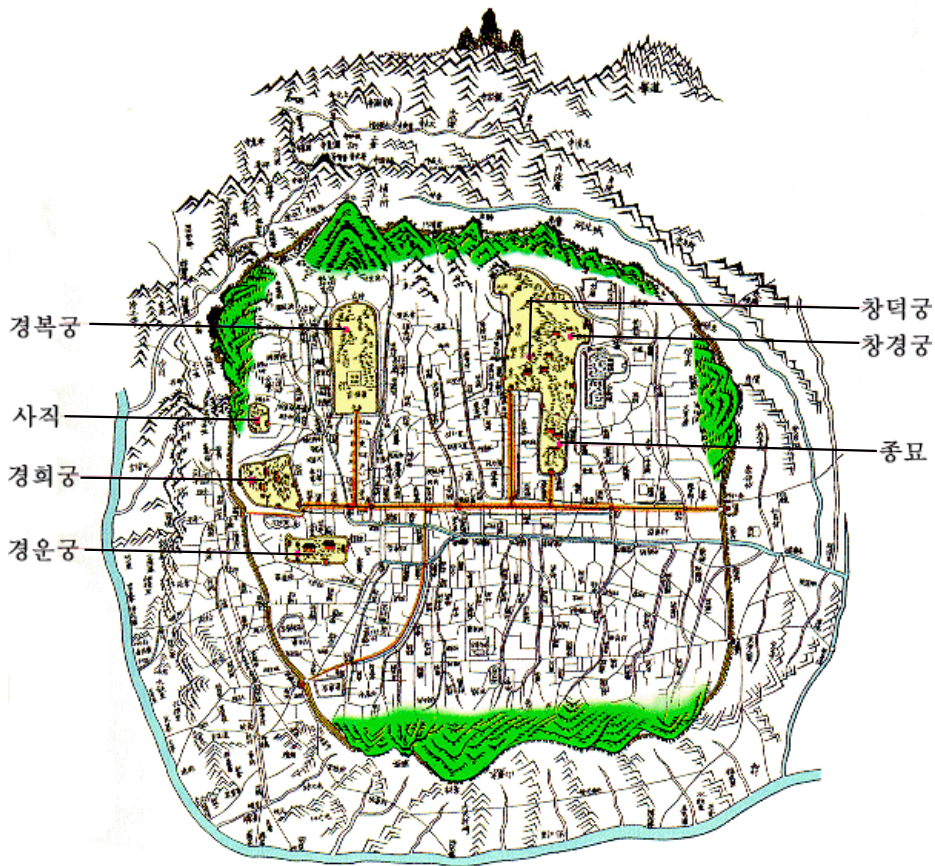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5대 궁궐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차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이미지와 품질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홍보 및 관광마케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을 포함한 5대 궁궐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궁궐 문화유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묘, 사직, 도성, 4대문, 원구단, 칠궁 등 5대궁 주변의 역사·문화자원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림 1-1] 5대 궁궐의 배치

&lt;표1-1&gt; 5대 궁궐의 연혁

| 경복궁              |                                       |
|------------------|---------------------------------------|
| 1395(태조4년).7     | 조선정궁으로 경복궁 창건                         |
| 1592(선조25년)      | 임진왜란시 전소                              |
| 1865(고종2년).4.12  | 경복궁 중건착수(흥선대원군)                       |
| 1868(고종5년).7     | 경복궁 복원(창건당시 규모)                       |
| 1895(고종32년).10.8 | 명성황후 시해(건청궁)                          |
| 1896(고종33년).2    | 고종황제 러시아공사관으로 파천                      |
| 1915.12.1        | 박물관(현 전통공예관) 및 동부속건물(현 경복궁 사무소 건물) 건립 |
| 1917             | 강녕전과 교태전 철거 소실된 창덕궁 침전권역 복원에 사용       |
| 1926             | 광화문이건 조선총독부청사 건립                      |
| 1948.8.15        | 구황실재산사무총국 경복궁사무소발족                    |
| 1954.3.1         | 경복궁 일반공개                              |
| 1968.12          | 광화문 복원                                |
| 1975.12.31       | 영추문 복원                                |
| 1988.9.1         | 만춘전 복원                                |
| 1991.4-1995.10   | 침전권역 복원                               |
| 1995.12-1999.12  | 동궁권역 복원                               |
| 1997.6-2001.7    | 흥례문권역 복원                              |
| 창덕궁              |                                       |
| 1405(태종5년)       | 조선조 이궁으로 조영                           |
| 1592(선조25년)      | 임진왜란으로 건물 전소                          |
| 1611(광해군3년)      | 소실건물 중건                               |
| 1615(광해군7년)      | 정궁으로 사용                               |
| 1954.3           | 외국인에게 봄, 가을 유료공개                      |
| 1955.3           | 일반인에게 매주 금요일 유료공개                     |
| 1960.5.27        | 창덕궁사무소 설치(일반인 연중 유료공개)                |
| 1963.11.23       | 영친왕 이은과 이방자 여사 한국 낙선재 거주              |
| 1966.2.3         | 순종계후 윤황후 서거(낙선재)                      |
| 1970.5.1         | 영친왕 서거(낙선재)                           |
| 1979.4.12        | 일반유료 제한공개(외국어 안내)                     |
| 1989.4.21        | 덕혜옹주 별세(낙선재)                          |
| 1989.4.30        | 이방자 여사 별세(낙선재)                        |
| 1991.10-1995.12  | 인정문, 인정전 내행각 복원                       |
| 1992.10-1995.12  | 낙선재 보수정비                              |
| 1997.12.6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
| 1999.11-2000.6   | 선정전, 희정당 연결행각 복원                      |

| 창경궁         |                                  |
|-------------|----------------------------------|
| 1418(세종즉위년) | 상왕전(태종) 신궁으로 수강궁 영건              |
| 1484(성종15년) | 수강궁터에 덕종·예종비 양전신궁으로 창경궁 영건       |
| 1592(선조25년) | 임진왜란으로 소실                        |
| 1616(광해군8년) | 명정전·문정전·환경전·인양전·홍화문 등 중건         |
| 1624(인조2년)  | 이괄의 난으로 통명전·양화당·관경전 등 소실         |
| 1633(인조11년) | 통명전·양화당·환경전·함인정 등 중건             |
| 1756(영조32년) | 제승전·청음정·낙선당·경극당·양생당·취선당·송경당 등 화재 |
| 1777(정조원년)  | 자경전 건립                           |
| 1830(순조30년) | 환경전 화재로 함인정·공목각·경춘전·송문당 등 연소     |
| 1857(철종8년)  | 선인문·동북소부장청·위장소·주자소·대청판당 등 화재     |
| 1873(고종10년) | 자경전 화재                           |
| 1909(순종3년)  | 창경궁 내 동물원·식물원 개설                 |
| 1911(일제시)   | 창경원으로 격하, 공개관람, 동·식물원 유료시설 건립    |
| 1950(대한민국)  | 6·25전쟁으로 폐원                      |
| 1954        | 서울 수복으로 개원                       |
| 1983.12.30  | 창경궁으로 궁궐 명칭 환원                   |
| 1992.12.31  | 장서각 해체                           |

| 덕수궁         |                                |
|-------------|--------------------------------|
| 1454-1488   | 월산대군의 사저로 사용                   |
| 1593        | 임진왜란시 임시행궁으로 사용                |
| 1595(선조28년) | 대안문을 세우고 궁 담장을 축조, 경운궁이라 칭함    |
| 1608(선조41년) | 경운궁에서 선조 승하, 광해군 즉위            |
| 1623-1895   | 왕실의 별궁으로 사용                    |
| 1885(고종32년) | 고종이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경운궁 수리 |
| 1897        | 고종황제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 중화전으로 환어     |
| 1904        | 함녕전 수리중 화재로 석어당을 제외한 전 건물 소실   |
| 1905        | 중화전 등 소실된 건물 복원                |
| 1906        | 소실된 대안문을 복원, 대한문이라 개칭          |
| 1907        |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 덕수궁으로 개칭          |
| 1909        | 르네상스식 석조전 준공                   |
| 1919        | 고종황제 덕수궁 함녕전에서 별세              |
| 1933.10.1   | 덕수궁 일반공개 시작                    |
| 1936        | 덕수궁 미술관(현 서관) 시공, 1938년 준공     |
| 1987        | 석조전을 궁중유물전시관으로 개·보수            |
| 1992        | 덕수궁사무소를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직제 확대개편      |

| 경희궁         |                                      |
|-------------|--------------------------------------|
| 1617(광해9년)  | 새문동에 신궁 창건 의논, 경덕궁으로 궁궐 명칭 정함, 창건 시작 |
| 1619(광해11년) | 정전, 동궁, 침전 등 궁궐 건물 조성                |
| 1620(광해12년) | 경덕궁 완성                               |
| 1624(인조2년)  | 인조반정, 이괄의 난 이후 인조가 경덕궁에 이어           |
| 1659(효종10년) | 현종 경덕궁에 이어                           |
| 1661(현종2년)  | 회상전에서 숙종 탄생                          |
| 1720(숙종46년) | 융복전에서 숙종 승하, 숭정문에서 경종 즉위             |
| 1760(영조36년) | ‘경덕’이라는 이름을 ‘경희’로 고침                 |
| 1776(영조52년) | 집경당에서 영조 승하, 숭정문에서 정조 즉위             |
| 1829(순조29년) | 큰 화재로 많은 전각 소실                       |
| 1831(순조31년) | 전각 재건                                |
| 1834(순조34년) | 회상전에서 순조 승하, 숭정문에서 현종 즉위             |
| 1860(철종11년) | 부분적인 수리                              |
| 1889(고종26년) | 숭정문 화재                               |
| 1902(광무6년)  | 전각 수리                                |
| 1909(융희3년)  | 경희궁 자리에 일본인 중학교 설치                   |
| 1999-현재     | 경희궁 터에 숭정전 등 일부 전각 복원 공사 진행 중        |

&lt;표1-2&gt; 5대궁 지정문화재

|     | 사적             | 국보  | 보물   | 천연기념물                   |
|-----|----------------|---|--|-------------------------|
| 경복궁 | 경복궁<br>(117호)  | 삼층석탑(99호)<br>근정전(223호)<br>경회루(224호)       | 아미산굴뚝(811호), 자경전(809호), 자경전<br>십장생 굴뚝(810호), 근정문 및 행각(812호)<br>풍기대(847호)   |                         |
| 덕수궁 | 덕수궁<br>(124호)  | 천상열차분야<br>지도각석(228호)<br>보루각 자격루<br>(229호) | 중화전 및 중화문(819호), 함녕전(820호)<br>조선영조왕이금상(932호)<br>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837호)<br>숭정구년명신법지평일구(839호)<br>신법지평일구(840호), 간평일귀혼개일구(841호)<br>측우대(844호), 양부일구(845호), 소총통(856호)<br>비격진천뢰(860호) |                         |
| 창경궁 | 창경궁<br>(123호)  | 명정전(226호)                                 | 홍화문(384호), 명정문 및 행각(385호)<br>옥천교(386호), 통명전(818호), 풍기대(846호)<br>관천대(851호), 팔각칠층석탑(1119호)   |                         |
| 창덕궁 | 창덕궁<br>(122호)  | 인정전(225호)                                 | 돈화문(383호), 인정문(813호), 선정전(814호)<br>희정당(815호), 대조전(816호), 구선원전(817호)  | 향나무(194호)<br>다래나무(251호) |
| 경희궁 | 경희궁지<br>(271호) |   | *비고: 서울시 유형문화재<br>흥화문(19호), 숭정전(20호)   |                         |



## 2. 내용적 범위

### 가. 관광상품의 정의

관광상품은 소비자인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공급자인 관광업체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수단적 개념이다. 국제관광기구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 정의에 따르면 관광상품이란 “관광지, 숙박시설, 교통수단, 서비스와 매력의 결합 공급물”을 뜻한다. Medick과 Middleton은 관광상품을 관광객이 집을 떠난 후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의 경험과 관계되는 것으로 관광지 매력과 시설, 관광지에의 접근성 등 3가지 구성요소의 결합물로 보았다. 관광상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서비스 상품이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행상품이다. 따라서 협의의 관광상품이란 곧 “여행상품” 그 자체를 의미한다. 여행상품의 분류는 여행목적, 여행규모, 여행기획자, 여행경비, 교통수단, 판매형태, 여행형태 등 분류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1-3> 여행상품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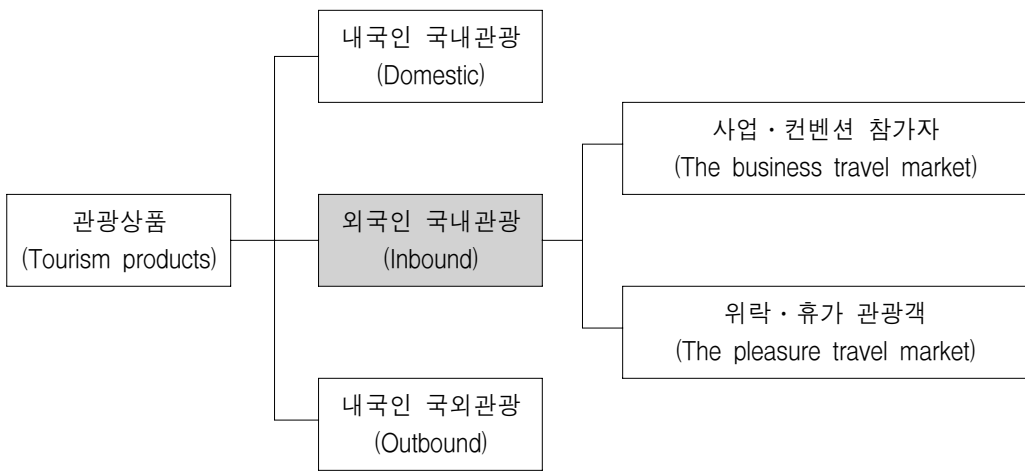
| 분류기준 | 종류                                       | 구체적 내용   |
|------|--|--|
| 여행구분 | 내국인국내여행<br>내국인국외여행<br>외국인국내여행            | 내국인의 국내여행(Domestic)<br>내국인의 국외여행(Outbound)<br>외국인의 국내여행(Inbound)   |
| 여행형태 | 팩키지여행<br>시리즈여행<br>국제회의여행<br>전세여행<br>포상여행 | 주최여행의 전형적인 형태, 비교적 단기간<br>동일목적, 동일기간, 동일형태, 정기적 실시<br>국제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여행<br>대절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br>상품제조원에서 판매증진을 위한 포상여행 |
| 여행경비 | 호화급<br>우등급<br>표준급<br>기본급                 | 호텔, 교통수단, 식사 등 여행서비스 최고급화<br>우등급 여행서비스<br>표준급 여행서비스<br>기본급 여행서비스   |
| 판매형태 | 기획여행<br>주문여행<br>조립여행                     | 여행사의 사전상품 제작에 의한 모집<br>고객의 주문에 따른 상품제작<br>여행 기본상품만 제공하고 기타는 본인 해결  |
| 체재기간 | 당일여행<br>숙박여행                             | 당일에 여행을 시작하여 종료<br>단기 숙박여행, 장기 숙박여행  |

(참조) 정찬중, 1994, 여행사경영론, pp.87-88.

아울러 관광상품은 일반상품과 구별되는 몇 가지 차별적 특성을 지닌다. 관광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상품으로서 최종 소비 이후에만 관광상품의 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일반상품은 장기간 사용이나 보관이 가능한 반면 관광상품은 특정 장소에서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진다. 관광상품에 대한 수요는 기후나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으며, 관광상품의 효용 가치는 소비자인 관광객의 주관적 척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나. 연구의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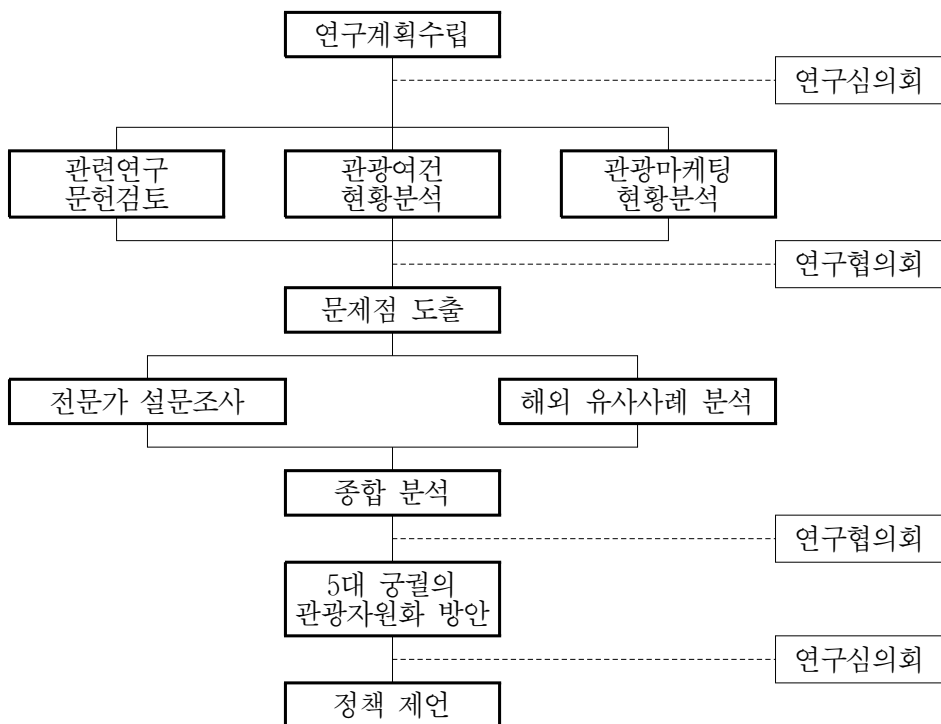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관광상품’이란 관광지, 숙박시설, 교통수단, 서비스, 매력 등을 모두 결합한 공급물을 뜻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5대공의 역사문화와 매력을 중심으로 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이벤트, 연계코스, 홍보기념품 개발 등에 한하여 관광상품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궁궐 관광상품과 연계될 수 있는 공연시설이나 식음시설, 숙박시설, 교통수단, 기타 서비스에 대한 활용방안도 보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1-2]와 같이 관광상품은 내국인 국내관광(Domestic), 외국인 국내관광(Inbound), 내국인 국외관광(Outbound)을 위한 관광상품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바운드 관광상품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림1-2] 연구의 내용적 범위

### 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존 문헌 분석, 궁궐 현지 조사, 의견 설문조사, 해외 유사사례 조사, 전문가 연구 협의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문헌 분석의 경우 궁궐의 역사, 문화, 건축, 조경 관련 서적, 문화재청 통계자료, 관광마케팅 조사자료, 기존 연구문헌을 검토하였다. 궁궐 현지 조사에서는 대표적인 자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궁궐 관리자와 문화재 안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궁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해외 유사사례 분석은 영국 버킹검 궁,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 오스트리아 쾰른 궁 등 유럽의 대표 사례에 관한 인터넷 정보 검색 및 여행서적 검토를 통해 간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문화관광부 담당 공무원, 문화재청 관계자, 학계 및 전문가, 문화재 안내원, 시민단체 대표자 등과 본 연구의 방향 및 주요 내용에 관해 자문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그림 1-3] 연구의 수행 과정

## 제2장 현황 분석

### 제1절 관광여건 분석

#### 1. 자원 · 매력물

##### 가. 경복궁(景福宮)

##### 1) 조선의 대표 궁궐

경복궁은 서울의 주산인 백악에 안긴 조선 제일의 궁궐로서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배치와 규모, 짜임새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경복궁은 풍수지리 형국상 북에 진산인 북악산(北岳山), 동에는 청룡의 지세인 낙산(駱山), 서에는 백호의 지세인 인왕산(仁王山), 남에는 안산인 남산(木覓山)이 자리한 명당에 위치하고 있다. 경복궁은 궁성 영역과 궁성 북쪽 밖의 후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후원 지역은 일제시대 조선총독 관사 부지로 사용되면서 훼손된 이후 경무대, 청와대로 전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거 경복궁 궁성의 둘레는 3km에 달하였으며 800여 채가 넘는 건물들이 뽁뽁이 들어서 있었다. 궁궐은 조선 당시 정치와 행정, 국방, 경제의 중심으로서 조선전기 경복궁을 중심으로 도성과 궁성을 수비하기 위한 국방체제, 6조 거리를 중심으로 한 관청지역,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 한양의 도시설계가 이루어졌다.

경복궁 내부는 정치와 외교가 시행되던 외전, 왕족이 생활하던 내전 그리고 휴식공간으로서의 후원 등으로 구성된다. 왕과 양반관료들이 만나 국사를 논의하고 처리하던 외전 영역은 군신공치를 지향하던 유교정치문화의 상징공간이다. 왕과 왕비, 세자, 세자빈, 대비, 후궁, 궁녀 등이 거처하던 내전 영역은 유교국가 조선의 대표자인 왕과 왕비가 유교의 생활윤리를 솔선수범하는 공간이었다. 후원영역은 정원, 연못 등 자연조경과 함께 농업사회 남성노동의 상징인 농사활동과 여성노동의 상징인 누에치기가 시행되던 공간이었다. 조선시대 경복궁 궐내는 왕족 이외에도 군인, 양반관료, 궁녀, 내시, 별감, 궐내차비 등 3천명에 이르는 관료들이 근무하였다.

##### 2) 근정전(勤政殿)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은 그에 걸 맞는 위용을 갖추고 있다. 경복궁 근정전은

왕이 신하와 중국 사신들로부터 조하(朝賀)를 받는 등 대규모 의례에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건물 외부에 높이 쌓은 이중 기단에는 둘레에 사신(四神)과 십이지(十二支) 조각을 배치하여 왕권의 신성성과 시공(時空) 장악력을 설명적으로 표현하였다. 근정전의 앞마당 조정(朝廷)에는 평평한 돌 박석이 깔려 있으며 근정문에서 근정전으로 이르는 길은 세 구역으로 나뉘어 삼도(三道)라 불린다. 삼도의 양 옆에는 품계석(品階石)이 세워져 있는데 왕과 관원들의 위계와 질서를 보여준다.

### 3) 경회루(慶會樓)

‘경회(慶會)’라는 명칭은 임금과 신하의 좋은 만남을 뜻하는 말인듯이 이 곳에서는 국가의 경사를 군신(君臣)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었다. 중국, 일본 등 외국사신을 비롯하여 왕과 고위관료, 왕족 등을 위한 수많은 연회가 이루어졌으며 이 때 사용된 의식과 음악, 음식 등은 조선시대 연회 문화를 대표한다. 경회루는 24개의 돌기둥이 2겹으로 되어 있는데 음양오행 원리를 따라 안쪽 기둥은 원형, 바깥기둥은 방형이다. 정면 7칸 측면 5칸 규모의 2층 팔작지붕 건물로 물 속에 드리워진 장대한 모습이 일품이다. 경회루가 있는 섬에 들어가는 길은 3개의 아름다운 석교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섬 서쪽에는 배를 대는 선착장이 있어 뱃놀이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두 섬에는 소나무가 심겨 있고 서쪽과 북쪽의 호안에는 느티나무, 회화나무가 서 있다.

### 4) 자경전(慈慶殿)

대비의 침전(慈殿, 東朝)인 자경전(慈慶殿)은 경복궁 중건 시에 지어진 건물로서 대비의 생신을 축하하거나 축수하는 진연(進宴) 행사가 거행되기도 하였다. 이른바 수렴청정(垂簾聽政)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장소로서 이때의 권력을 감안하여 ‘동조(東朝)’로 불리기도 한다. 자경전 후원에는 아름다운 꽃담과 굴뚝이 조성되었는데 서쪽 담에는 만수의 문자와 꽃무늬, 거북문, 천도복숭아, 모란, 매화, 국화, 대나무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동쪽 담에는 화전으로 정교하게 축조한 홍예문이 남아있다. 굴뚝의 벽면에는 해, 산, 구름, 바위, 소나무, 거북, 사슴, 학, 불로초등 십장생(十長生)과 바다, 포도, 연꽃, 대나무가 장식되어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보인다.

## 5) 교태전(交泰殿) 아미산(娥媚山)

왕비의 침전(中殿, 中宮殿)은 교태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익각을 갖춘 건물로서 왕과 왕비 그리고 일가족의 내밀한 생활이 이루어지던 장소이다. ‘교태(交泰)’는 음과 양이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인 태극을 뜻하는 말로 원래는 천지교태(天地交泰)를 뜻하는 말이지만, 음과 양이 만나 새로운 생명을 그것도 왕위를 이을 세자를 잉태하는 장소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교태전 후원에는 아미산(娥媚山) 선산을 상징한 방형단(方形壇)을 만들고 화계를 조성했다. 아미산에는 6각형의 화전으로 축조한 굴뚝 4개가 서 있으며 그 벽면은 당초문, 소나무, 대나무, 매화, 모란, 국화, 용, 호랑이, 박쥐, 해태, 구름 등 정교한 문양으로 장식되어있다.

## 6) 후궁(後宮) 영역

후궁 영역은 왕실 주요 인물의 거처가 집중되어 있는 중심부의 뒷부분을 뜻하며 여기에는 후궁의 처소가 마련되기도 하였지만 대개는 왕실 일가족의 의식주 생활을 보살피는 내관과 궁녀들의 일터와 삶터가 있었다. 음식을 장만하던 소주방(燒廚房), 음료와 과자를 만들던 생과방(生果房), 빨래를 담당하던 세답방(洗踏房), 의복을 짓던 침방(針房), 수를 놓던 수방(繡房) 등 여러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후궁 영역에 남아 있는 건물은 제수합 한 채 뿐이고, 현재 동궁 뒤편에 있는 소주방의 발굴이 진행되고 있어서 발굴 직후 복원공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 7) 후원(後苑) 영역

경복궁 후원은 왕족들의 휴식공간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궁중 민속행사가 거행된 곳으로서 왕족들의 여가생활과 왕실풍속을 대표하는 곳이다. 경복궁 후원영역은 고종 대에 증건되면서 건청궁, 집옥재 등 많은 건물이 세워졌다. 고종은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의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경복궁 강녕전을 떠나 후원 영역의 건청궁이나 집옥재에 거처하였다. 명성왕후 민씨가 을미사변 때 건청궁 안의 옥호루에서 시해된 것은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꺾박과 조선왕실의 어려움을 상징한다.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神武門)을 나서면 현 청와대 자리에 경복궁 후원에 해당하는 경무대(景武臺)가 있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는 국왕이 몸소 농사를 짓는 친경(親耕)을 행하고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경정전



경회루



교태전



만춘전



향원정



자경전 꽃담

## 나. 창덕궁(昌德宮)

### 1) 조선 궁궐의 원형 보존

조선전기 창덕궁은 법궁인 경복궁의 기능을 보좌하는 이궁으로서 기능을 했고 특히 왕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주 활용되었다.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한다 하여 이웃한 창경궁과 더불어 동궐(東闕)이라 불렀다. 임진왜란으로 창덕궁이 폐허가 되자 1610년(광해군2년)에 다시 짓고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하기까지 조선후기 국왕이 주로 거처하는 법궁으로 기능하였다. 창덕궁은 조선의 궁궐 중 가장 오랜 기간 임금들이 거처했던 궁궐이다. 창덕궁은 자연 지형에 따라 건물들을 배치하여 한국 궁궐 건축의 비정형적 조형미를 대표하고 있다. 창덕궁의 후원(後苑)은 다양한 정자, 연못, 수목, 괴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다. 조선 궁궐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창덕궁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배치가 탁월하여 1997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2) 인정전(仁政殿)

인정문은 역대 많은 왕들이 즉위식을 거행한 후 인정전으로 들어가 왕위에 오른 문이다.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은 왕이 신하들로부터 조하를 받고 외국 사신을 접견한 곳으로서 공식적인 국가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4칸, 팔작지붕의 중층 건물로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한 후에 내부 일부가 서양식으로 바뀌었다. 인조 27년에 효종이, 효종 10년에 현종이, 현종 15년에 숙종이, 경종 4년에 영조가 즉위식을 가졌고 고종 역시 이 곳에서 즉위하였다.

### 3) 회정당(熙政堂)-대조전(大造殿)

회정당은 원래 창덕궁의 내전에 속한 건물이었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 편전으로 사용되었다. 중앙의 정면 3칸, 측면 3칸을 통간으로 하여 응접실로 사용하였고 응접실의 서편은 같은 크기로 하여 회의실로 사용하였다. 임진왜란 등 몇 번의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20년 경복궁 강녕전을 이전하여 다시 세워 오늘날에 이르렀고, 재건 당시 한식을 위주로 하면서 양식을 가미하였다. 현재 응접실 좌우에 김규진(金圭鎭)의 <금강산도> · <해금강도>가 있고, 조선 말기와 한말에 걸친 궁궐 편전의 건축형태를 남기고 있다.



대조전은 조선조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최고의 건물로서 서양식 가구를 갖춘 한말 궁궐의 내실 모습을 보여주는 창덕궁의 내전 중 가장 으뜸가는 건물이다. 대조전은 임진왜란 때 창덕궁이 불에 타면서 소실되었다가 광해군 원년(1609) 창덕궁 재건 때 다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조반정과 순조 33년(1833) 마지막으로 1917년에 불에 탄 것을 경복궁에 있던 교태전을 헐어 가져와 1920년 완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4) 경훈각(景薰閣)

경훈각은 대조전 서북쪽에 연결된 생활공간으로서 왕과 왕비가 사용하던 궁중 화장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는 단층 건물이지만 원래는 2층에 청색기와로 된 건물이었으며 위층이 징광루이고 아래층은 경훈각이라 하였다. 왕의 이동식 변기를 '매우틀'이라고 하는데, 세 쪽은 터져 있는 'ㄷ'자 모양의 나무로 된 의자식 좌변기다.

#### 5) 성정각(誠正閣)

성정각이 중심이 되는 내의원은 전의들이 왕과 왕족의 치료를 위하여 머물던 일종의 궁중 의료기관으로 약방이라고도 부른다. 이곳에 있는 성정각은 원래 왕이나 세자가 학자들과 책을 공부하며 정책을 토론하던 곳, 곧 서연(書筵)을 열던 곳이지만 일제강점기에 순종이 이곳을 내의원으로 사용하였다.

#### 6) 낙선재(樂善齋) 영역

낙선재 일곽은 조선 왕조 마지막 궁중 여성들이 살았던 곳으로 고종이 편전으로 사용하였고, 순종비인 순정황후와 조선시대 마지막 공주였던 덕혜옹주, 영왕비 이방자 여사가 1989년까지 이곳에서 생활하였다. 영왕비 일가가 현대식으로 개보수하여 사용하던 낙선재 일곽은 낙선재 상량문에 따라 현종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되어, 낙선재는 현종의 침전으로, 석복헌은 경빈 김씨의 침전으로, 수강재는 순원왕후의 침전으로 꾸며 당시의 생활상을 재현하고 있다. 낙선재와 석복헌(錫福軒), 수강재(壽康齋) 뒤편에는 각각 아름다운 화계(花階) 후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화계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 7) 연경당(演慶堂) 영역

연경당은 원래 순조 28년 (1828) 당시 왕세자였던 효명세자의 청으로 사대부집을 모방하여 궁궐 안에 지은 99칸 집이었으나 지금의 연경당은 그 후 다시 지은 것이다. 연경당은 창덕궁 안에 지은 유일한 민가형식의 건물로 사랑채의 당호가 연경당이며, 사랑채 동쪽에 위치한 선향재는 독서와 서고를 겸한 건물이다.

## 8) 부용정(芙蓉亭)-주합루(宙合樓) 영역

부용정은 창덕궁 후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부용지 연못을 끼고 주합루를 바라보며 북향을 한 정자이다. 영화당에서 과거를 보고 급제를 하면 주합루에 올라가 왕실도서관의 서책을 읽으면서 능력을 함양하게 되는데, 그때 축수해 주는 자리가 부용정이다. 주합루는 정조가 규장각을 만들어 실학으로 팽배한 학자들을 양성한 곳으로 유명하다. 경복궁에 경회루가 있듯이, 주합루는 창덕궁의 연회장으로도 사용되었고 휴식기능과 국정업무 수행을 위한 생산적인 공간 모두를 갖춘 곳이었다.

## 9) 존덕정(尊德亭) 영역

관람정은 불로문 앞을 지나 후원의 안쪽에 있는 정자로서 평면 형태가 합죽선(合竹扇) 모양으로 되어 있다. 존덕정은 관람정 서북쪽에 있는 육모 정자로서 커다란 연못을 끼고 있는데 이 연못의 물이 차서 넘치면 개천으로 흘러서 관람정 정자 앞 연못으로 흘러들게 되어있다. 존덕정에서 뽕우사로 가려면 박석을 딛고 가야 하는데, 그 돌들은 지체 높은 양반들의 팔자(八字)걸음을 배울 수 있도록 깔려있다.

## 10) 옥류천(玉流川) 영역

옥류천 영역은 창덕궁 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한적한 영역이다. 인조가 친히 쓴 ‘옥류천’이라는 글씨와 숙종의 친필시가 바위에 새겨져 있으며 이곳에서는 국왕과 신하들이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을 펼쳤다고 한다. 청의정은 옥류천 안쪽에 초가지붕을 한 정자로서 임금은 정자 앞 논에 손수 모를 내어 벼를 심고 그 수확으로 얻은 벼짚으로 정자의 지붕 이엉을 잇게 하였다. 농산정은 태극정의 동쪽에 위치하는 옥류천 일대 골짜기의 마지막 정자로서 임금이 청의정을 비롯한 옥류천 지역에 나왔을 때 다과상을 마련하던 곳으로 추정된다.



부용정



낙선재 후원



관람정



농산정



청의정



애련정

## 다. 창경궁(昌慶宮)

### 1) 궁중여성 생활문화와 주거공간 발달

창경궁은 성종 14년(1483)에 세조비 정희(貞熹)왕후, 덕종비 소혜(昭惠)왕후, 예종비 안순(安順)왕후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옛 수강궁(壽康宮) 자리에 창건한 궁이다. 창경궁은 독립적인 궁궐의 역할과 함께 창덕궁의 모자란 주거공간을 보충해주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였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거의 모든 전각이 소실되었고 광해군 8년(1616)에 주요 전각들이 재건되었으나 인조 때 이괄의 난, 순조 때 대화재로 인해 일부 건물이 소실되었다. 1907년 순종이 창덕궁으로 이어하면서 일제는 순종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창경궁의 보루각 일대에 동물원을 개설하고 식물원도 함께 설치하였고, 창경궁의 통명전 북쪽 일대 자경전이 위치해 있던 자리에는 박물관이 세워졌다. 1911년 4월 26일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을 통칭하여 창경원(昌慶苑)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시민들의 놀이터로 격하되었다가, 1983년 12월 창경궁의 옛 궁궐 명칭을 회복하였다.

### 2) 홍화문(弘化門)

창경궁의 정문으로 명정전, 명정문과 함께 광해군 때 재건된 건물로 알려져 있다. 영조는 재위 26년 이곳에서 서울 도성의 백성들을 불러 균역법의 시행여부를 물어보았고,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환갑을 기념하여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다.

### 3) 명정전(明政殿)

풍수지리적인 이유로 지세에 따라 동향을 하고 있는 명정전은 창경궁의 정전으로서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거나 국가의 큰 행사를 치르던 장소로 외국 사신을 맞이할 때 사용되었다. 명정문에서 명정전에 이르는 공간은 궁중 의례를 재현하거나 궁중 음악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 4) 통명전(通明殿)

창경궁 통명전은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용마루가 없는 내전의 으뜸 전각인 중

궁전이다. 건물 전면에는 연회나 의례 등 내전의 큰 행사를 위한 규모가 큰 월대가 마련되었으며, 월대 상면에는 방형으로 다듬은 화강암 박석을 깔았다. 동궐도를 보면, 통명전 서쪽에 있는 지당 서쪽과 남쪽으로 각각 담을 두르고 염고(鹽庫)라고 기록한 장독대가 있었다.

### 5) 자경전(慈慶殿) 터

정조는 통명전 북쪽 언덕 위에 어머니 헌경왕후(혜경궁 홍씨)를 위해 자경전을 건립하였고, 창경궁 동북쪽 건너편 현 서울대학교 병원 자리에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모하기 위해 경모궁을 지었으며, 창경궁에서 경모궁으로 출입하기 위해 홍화문 북쪽에 월근문을 세웠다.

### 6) 성종태실비(成宗胎室碑)

성종태실비는 태실 동쪽에 있는데 귀부(龜趺)와 비신(碑身), 이수(硃柱)를 갖추고 있고 비신 앞면에는 "성종대왕 태실"이라 새겨져 있다. 일제는 전국 각지의 태실을 경기도에 있는 서삼릉에 한꺼번에 모아 놓았는데, 성종태실의 석물만은 원래 경기도 광주군 경안면에 있었던 것을 1930년 5월 창경궁에 가져다 놓았다. 궁궐 내에 위치한 태실을 통해 조선 왕실의 장태(藏胎)문화와 왕실의 산속(産俗)을 이해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 7) 춘당지(春塘池) 일원

창경궁 북쪽에는 현재 춘당지와 소춘당지가 있다. 동궐도에 의하면, 춘당지 남쪽으로는 “풍년이 든 논을 바라보는 곳”이라는 의미의 관풍각이 있고, 동남쪽으로는 권농장이던 내농포가 있었다. 내농포는 임금이 직접 벼를 심고 추수를 하던 곳이다. 또한 춘당지는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다.

## 라. 덕수궁(德壽宮)

### 1)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근대문화유산

덕수궁(德壽宮)의 원래 명칭은 경운궁(慶運宮)으로 1907년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 이후 고종의 거처로 사용되면서 상왕(上王)의 궁이란 뜻에서 덕수궁으로 변경되었다. 일본의 침탈을 피하여 외국공사관 주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俄館播遷) 이후 고종의 시어소(時御所)로 쓰이다가 대한제국 선포 이후 황실 궁궐인 경운궁이 되었다. 창건 당시의 원형은 불분명하나 1904년의 화재 이후 재건 과정에서 작성된 『경운궁 중건도감의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일제침략기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궁궐의 위상이 격하되고 궁궐 내부 영역이 훼손되었다.

### 2) 중화전(中和殿)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은 1902년 창건 당시 2층이었으나, 1904년 화재로 소실된 후 재건되면서 단층으로 지어졌다. 대한제국 황제의 정전이었으므로 내부의 감입 천장과 어좌의 천장에 모두 황금색 오조룡(五爪龍)을 쌍으로 배설하였다. 외부 월대 남면 중앙의 섬돌에도 오조 쌍룡을 새겼고, 어좌의 좌탁(座榻) 부분과 외부 창호에 황색을 칠하여 황제의 정전으로서 격식을 높였다.

### 3) 함녕전(咸寧殿)

1897년에 새로 지은 함녕전은 고종황제의 생활처인 침전이자 승하처이다. 1904년 화재로 소실되자 그 해 다시 “ㄴ”자 꼴로 지었으며 행각으로 둘러 싸여 있다. 함녕전 왼쪽에 명성황후의 빈전인 경효전을 세웠으므로 시왕(時王)의 침전 곁에 혼전을 세운 유례없는 배치형식이 이루어졌다.

### 4) 정관헌(靜觀軒)

건물의 형태로 보아 원래 휴식처로 마련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선원전 화재 후인 1901년 태조고황제의 어진을 이곳에 임시로 보관하였다. 1902년에 고종과 순종의 어진을 이곳에서 제작하였으며, 창경궁에 있던 어진을 이곳에 옮겨 1911년까지 봉안하다가 중화전으로 옮겨 모셨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 5) 석조전(石造殿)

석조전은 1900년 영국인 브라운의 설계로 착공되어 1909년에 가셔야 준공되었다. 건립 이후 석조전은 상왕인 고종이 외빈을 접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1919년에 고종황제가, 1926년에는 순종황제마저 돌아가시자 덕수궁 전체가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석조전 앞뜰에는 분수와 연못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식 정형정원이 꾸며졌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정원이다. 석조전은 광복 이후 미·소공동위원회장,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거쳐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마. 경희궁(慶熙宮)

### 1) 5대궁 가운데 가장 크게 훼손된 궁궐

경희궁은 광해군이 지은 것으로 인조 이후에는 법궁 동궐(東闕)에 버금가는 이궁 서궐(西闕)이었다. 경희궁의 원래 명칭은 '경덕궁(慶德宮)'으로 정식 이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피우처로 생각하여 지은 것으로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광해군은 새로 지은 궁궐로 이어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인조반정을 맞아 경희궁에 입궐해보지도 못하고 폐위되었다. 왕위에 오른 인조는 이괄의 난으로 피난을 다녀온 후 경덕궁에 임어하여 9년을 보냈다. 그러나 경희궁은 고종이 강제로 퇴위 당한 후 급속도로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경희궁의 옛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사라졌으며 궁궐 내부 영역에 최근 서울시립박물관이 조성되면서 궁궐의 위용과 면모를 잃게 되었다.

### 2) 홍화문(興化門)

홍화문은 광해군 10년(1618)에 세운 경희궁의 정문으로서 원래 궁궐의 동남쪽 모퉁이에 동향을 하여 운중가와 연결되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이진되는 수난을 당하다가 1988년에 이르러서야 원래 위치와 향(向)과는 다르게 남향으로 복원되었다.

### 3) 승정전(崇政殿)

승정전은 경희궁의 법전으로서 국왕과 신료들이 조회를 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승정전은 현재 동국대학교 내 정각원이라는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희궁 터에는 근년에 새로 복원된 승정전이 자리하고 있다.

## 2. 이벤트

### 가. 궁중의례 재현행사

서울의 5대 궁궐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이벤트는 고궁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궁중의례 재현행사이다. 궁중의례 재현행사는 지난 1995년 경복궁 근정전에서의 '수문장 교대의식'과 '왕세자 생일 축하연'을 시작으로 하여, 2003년 '고종황제 등극의례'에 이르기까지 총21건의 행사가 거행되었다.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수문장 교대의식은 1999년부터 상설화되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표2-1> 궁중의례 재현행사 추진실적

| 년도   | 행사명   | 기간  | 장소               | 예산(천원)    | 수행업체       |
|------|---|---|------------------|-----------|------------|
| 1995 | ○ 궁궐수문장 교대의식<br>○ 왕세자 생일 축하연                        | 5.27(토)   | 경복궁 근정전          | 42,420    | (주)한국예술    |
| 1996 | ○ 왕세자입학의 · 왕세자행차<br>행렬/왕세자사 · 부 · 빈객상<br>견의식/왕세자관례의 | 6.1(토)  | "                | 63,192    | (주)예문관     |
|      | ○ 국조보감의   | 10.19(토)  | 창경궁 명정전<br>종묘 정전 | 46,500    | 영음기획       |
| 1997 | ○ 국조보감의   | 5.8(목)  | "                | 44,580    | 영음기획       |
|      | ○ 세종대왕 즉위의  | 10.18(토)  | 경복궁 근정전          | 67,920    | (주)SBS프로덕션 |
| 1998 | ○ 경회루연못소초담수고유제                                      | 2.25(수)   | 경복궁 경회루          | 27,000    | (주)예문관     |
|      | ○ 흥례문 상량식   | 9.23(수)   | 경복궁 흥례문          | 110,000   | (주)예문관     |
| 1999 | ○ 왕세자 책봉의   | 10.17(일)  | 경복궁 근정전          | 70,000    | (주)예문관     |
|      | ○ 양로연의  | 10.7(토)~10.8(일)   | 창경궁 명정전          | 216,000   | (주)MBC미디어텍 |
| 2000 | ○ 중궁정지명부조하의 ·<br>중궁정지회명부의                           | 10.14(토)~10.15(일)                                       | "                | 243,000   | (주)한국의장    |
| 2001 | ○ 정지왕세자백관조하의  | 10.20(토)~10.21(일)                                       | "                | 230,000   | (주)한국의장    |
|      | ○ 경복궁 흥례문 낙성식                                       | 10.26(금)  | 경복궁 흥례문          | 68,000    | (주)한국의장    |
| 2002 | ○ 수인국서폐의 · 연인국사의                                    | 6.15(토)~6.16(일)   | 창경궁 명정전          | 240,000   | (주)서울예술    |
|      | ○ 중궁정지회명부의  | 10.5(토), 10.13(일)                                       | "                | 222,000   | (주)한국의장    |
|      | ○ 양로연의  | 5.17(토)~18(일)   | "                | 127,000   | (주)MBC미디어텍 |
| 2003 | ○ 임문홀민의   | 6.8/15/22, 9.21/28<br>10.5/12/16/17/18<br>10.19/26(12회) | 경복궁 흥례문          | 94,900    | (주)한국의장    |
|      | ○ 친잠례   | 6.21(토)~6.22(일)   | 경복궁 자경전          | 141,135   | (주)한국의장    |
|      | ○ 고종황제 등극의례   | 11.14(금)  | 경복궁 근정전          | 247,687   | (주)한국의장    |
| 계    | 21건   |   |                  | 2,301,334 |            |

(자료) 문화재청 궁능활용과 통계현황자료, 2004. 1



그러나 기존의 궁중의례 재현행사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재현행사가 상설화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쳐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매력 상품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둘째, 일반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고 단순한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어 큰 흥미나 감동을 유발하지 못한다. 셋째, 행사 개최 및 일반인 참여 기회에 대한 사전 홍보가 부족하고 궁궐 현장에서조차 재현 내용에 대한 효과적인 해설이 제공되지 못하다. 넷째, 궁중의례 재현행사는 주로 경복궁 근정전, 창경궁 명정전, 종묘 정전 일대를 중심으로 세종대왕 즉위식, 왕세자 입학의 등 국왕과 왕실의 관점에서 시행된 행사가 대부분이었다. 다섯째, 수행업체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전문성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고 조선 궁중 문화의 가치와 품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

<표2-2> 궁중의례 재현행사 내용

| 행사명   | 행사 내용  |
|---|--|
| ○ 궁궐수문장 교대의식  | 광화문을 지켰던 장수와 군사들의 교대 절차의식                                      |
| ○ 왕세자 생일 축하연  | 궁중정재 및 정악공연(처용무, 무고, 수제천 등)                                    |
| ○ 왕세자입학의 · 왕세자행차행렬<br>/왕세자사 · 부 · 빈객상견의식/<br>왕세자관례의 | 왕세자가 처음 학습에 임하는 의식<br>왕세자 교육을 담당하는 관청(영의정-정2품) 상견례<br>왕세자 성년의식 |
| ○ 국조보감의   | 국조보감(왕의 선정만을 모인 편년체 사서) 종묘 봉향의식                                |
| ○ 세종대왕 즉위의  | 국왕의 상징인 대보를 세자에게 전달하는 의식                                       |
| ○ 경회루 연못 소척담수 고유제                                   | 경회루 연못 새물 담기 의식  |
| ○ 흥례문상량식  | 경복궁 흥례문 상량의식   |
| ○ 왕세자책봉의  | 왕세자로 책봉하는 의식   |
| ○ 양로연의  | 노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경하는 의식<br>노인 어른을 모시는 잔치                          |
| ○ 중궁정지명부조하의 · 중궁정지<br>회명부의                          | 왕비가 정지나 동지에 명부의 조하를 받는 의식과 조하의<br>식 후 베푸는 축하 연회의식              |
| ○ 정지왕세자백관조하의  | 정지나 동지에 왕이 왕세자와 백관의 조하를 받는 의식                                  |
| ○ 경복궁흥례문 낙성식  | 경복궁 흥례문 준공식  |
| ○ 수인국서폐의 · 연인국사의                                    | 왕이 인국(일본, 유구국)의 서폐를 받고 사신에게 베푸는<br>연회 의식                       |
| ○ 중궁정지회명부의  | 왕비와 함께 즐기는 설날 · 동짓날의 모임  |
| ○ 임문홀민의   | 나라에서 베푸는 가난 구제 의식  |
| ○ 친잠례   | 왕비의 누에치기 장려 의식   |
| ○ 고종황제 등극의례   |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는 의식  |

(자료) 문화재청 궁능활용과 통계현황자료, 2004. 1

## 나. 궁중 문화행사

서울의 5대궁에서는 궁중의례 재현행사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문화관광부, 서울시 등의 주관으로 각종 문화행사가 추진되었다. 문화관광부는 1999년 종묘제례악 상설공연, 덕수궁 궁중음악회, 2001년 한국복식 2000년 패션쇼, 2002년 한국전통복식 축제, 경복궁 궁성문 개폐 및 수문장 교대의식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덕수궁 가족음악축제, FIFA 월드컵 전야제, 명절 전통민속놀이 등 일부 궁중 문화행사는 궁궐 본연의 기능이나 가치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장소만 활용한 이벤트로 볼 수 있다.

<표2-3> 궁중 문화행사 추진현황

| 년도   | 사업명                          | 일시 및 장소                                     | 주관기관           |
|------|------------------------------|---|----------------|
| 1998 | 정관헌 궁중다도 재현                  | 10/27, 덕수궁 정관헌                              | 문화재청           |
| 1999 | 설날 및 추석 명절 전통민속놀이            | 2/14-17, 9/23-26,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 문화재청           |
|      | 덕수궁 봄꽃축제(야간공개)               | 4/10-5/9, 덕수궁                               | 문화재청           |
|      | 종묘대제 봉행<br>(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 5/2, 종묘/종묘대제봉행위원회                           | 전주이씨<br>대동종약원  |
|      | 종묘제례악 특별공연<br>(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 4/17, 6/12 난계국악단                            | 충북<br>영동군청     |
|      | 종묘제례악 상설공연                   | 9/5-11/14(매월 셋째 일요일), 종묘 정전                 | 문화관광부          |
|      | 궁중음악회 개최<br>(서울팝오케스트라 상설 공연) | 3-10월(매월 셋째 토요일), 덕수궁 중화전                   | 문화관광부          |
|      |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 9/1- (주6회 실시), 덕수궁 대한문 앞                    | 서울특별시          |
|      | 조선조 과거시험 재현                  | 10/24 창경궁 함인정                               | 서울특별시<br>(예문관) |
| 2000 | 명절 전통민속놀이                    | 1/1-1/2, 2/4-2/6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및 14개 능원 | 문화재청           |
|      | 설치미술 - 새천년 지혜큐브              | 1/1-1/31, 종묘 정전 앞 광장                        | 문화재청후원         |
|      | 왕궁수문장 교대의식(덕수궁)              | 3-10월 덕수궁, 창덕궁                              | 서울특별시          |
|      | 덕수궁 봄꽃문화축제                   | 4/15-5/14, 덕수궁 일원                           | 문화재청           |
|      | 종묘대제 봉행                      | 5/17 종묘 정전, 창덕궁                             | 종묘대제<br>봉행위원회  |
|      | 조선조 과거시험 재현                  | 10/29 창경궁                                   | 서울특별시          |

(표 계속)

| 년도   | 사업명               | 일시 및 장소                                       | 주관기관       |
|------|-------------------|---|------------|
| 2001 | 명절 전통민속놀이         | 1/1, 1/23-25, 2/7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및 14개 능원 | 문화재청       |
|      |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 3-10월 덕수궁, 창덕궁                                | 서울특별시      |
|      | 덕수궁 봄꽃문화축제        | 4/24-5/27 덕수궁 일원                              | 궁중유물 전시관   |
|      | 종묘대제 봉행           | 5/6 종묘 정전, 경복궁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
|      | 한국복식 2000년 패션쇼    | 5/2-5/7 경복궁 자경전 앞, 함화당                        | 문화관광부      |
|      | 조선조 과거시험 재현       | 10/7 창경궁 명정전                                  | 서울특별시      |
| 2002 | 왕궁수문장교대의식         | 5/31-11/30 덕수궁, 창덕궁                           | 서울특별시      |
|      | 덕수궁가족음악축제         | 3-11월 덕수궁 중화전                                 | 문화관광부      |
|      | 월드컵 개최 기념 황실복식전   | 6/10-6/30 덕수궁 중화전                             | 궁중유물 전시관   |
|      | 한국전통복식축제          | 6/12 덕수궁 중화전                                  | 문화관광부      |
|      | FIFA 전야제: 리셉션, 만찬 | 5/28 경복궁 자경전, 경회루, 수정전                        | 월드컵 조직위    |
|      | 궁성문 개폐 및 수문장교대의식  | 5/11-11/30 경복궁 흥례문                            | 문화관광부      |
|      | 조선시대 궁중생활상 기획사진전  | 6/11-10/31 경복궁 흥례문 행각                         | 문화재청       |
|      | 종묘대제              | 5/2 종묘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
| 2003 | 궁성문 개폐 및 수문장 교대의식 | 3/1-11/30 경복궁 흥례문, 광화문 일원                     |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
|      |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 3/22-12/31 창덕궁 돈화문                            | 서울특별시      |
|      | 조선 세종조의 궁중조회 상참의  | 8/16-10/26 매주 토,일 경복궁 사정전                     |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

(자료) 문화재청 궁능활용과 통계현황자료, 2004. 1

### 3. 기반시설 · 접근성

5대 궁궐 내부의 기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매점, 기념품 판매점, 음료자판기,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복궁의 경우 (구)국립중앙박물관 자리에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이 이전하여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방문객 안내센터, 전시홍보공간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종합안내시설이나 관광기념품 · 홍보물 전시공간이 부재한 실정이다. 경희궁은 기본적인 편의시설 조차 매우 미비하여 시설 확충과 관리 투자가 요구된다. 현재 서울의 궁궐 내에서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나 숙박시설이 전무하다. 대부분의 궁궐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나 창경궁의 경우 지하철역과 떨어져 있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접근성 면에서 다소 불리하다. 서울 도심 중앙부에 위치한 덕수궁은 지리적 위치상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별도의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5대궁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나 별도의 교통수단은 운행되고 있지 않으며, 서울시티투어버스의 경우 경희궁을 제외한 나머지 궁궐을 연계하는 고궁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관광객의 이용률도 다소 낮은 편이다.

<표2-4> 5대궁 편의시설 현황

| 구분  | 매점 | 기념품<br>판매점 | 수신기<br>대여소 | 사진업 | 음료<br>자판기 | 화장실 | 전시관<br>박물관 |
|-----|----|------------|------------|-----|-----------|-----|------------|
| 경복궁 | 1  | 1          | -          | 1   | 1(4)      | 3   | 2          |
| 창덕궁 | 2  | -          | -          | -   | 1(1)      | 2   | -          |
| 창경궁 | -  | 1          | -          | -   | 1(11)     | 4   | -          |
| 덕수궁 | 1  | 2          | 1          | -   | 2(8)      | 5   | 2          |
| 경희궁 | -  | -          | -          | -   | 1(1)      | 1   | -          |

(자료) 문화재청 궁능활용과 통계자료, 2004년 1월 / ( ) : 음료자판기수

<표2-5> 5대궁 대중교통 접근성

| 구분  | 버스 | 지하철 | 주차장    |
|-----|----|-----|--------|
| 경복궁 | O  | O   | O (무료) |
| 창덕궁 | O  | O   | O (무료) |
| 창경궁 | O  | X   | O (유료) |
| 덕수궁 | O  | O   | X      |
| 경희궁 | O  | O   | X      |

## 4. 관람 및 안내제도

### 가. 궁궐 관람제도

창덕궁을 제외한 서울의 4대궁은 매주 정기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일반인 관람이 개방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창덕궁의 경우 개별 관람은 허용되지 않으며 언어권별로 정해진 시간에 입장하여 안내원과 동행하는 제한 관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창덕궁 옥류천 특별관람 코스는 2004년 5월 1일부터 추가 개방된 후원의 일부 구역을 포함하는 관람코스이다. 옥류천 지역은 1976년 출입이 금지된 이래 28년 만에 개방되는 곳으로 문화재 원형 보존과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곳이다. 옥류천 특별관람 코스는 매월 25일 전후 다음달 한 달분을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받고 있으며 매회 50명 이내로 관람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표2-6> 궁궐 관람시간

| 구 분        | 3월 - 10월    |             |   |   | 11월 - 2월    |             |
|------------|-------------|-------------|---|---|-------------|-------------|
|            | 평 일         |             | 주말(토.일.공휴일)                                       |   |             |             |
|            | 매 표         | 관람          | 매 표   | 관람  | 매 표         | 관람          |
| 창경궁<br>덕수궁 | 09:00-17:00 | 09:00-18:00 | 09:00-18:00                                       | 09:00-19:00                                       | 09:00-16:30 | 09:00-17:30 |
| 경복궁        | 09:00-17:00 | 09:00-18:00 | (5-8월)<br>09:00-18:00<br>(4,9,10월)<br>09:00-17:00 | (5-8월)<br>09:00-19:00<br>(4,9,10월)<br>09:00-18:00 | 09:00-16:00 | 09:00-17:00 |
| 창덕궁        | 09:00-17:15 | 09:00-18:00 | 09:00-17:00                                       | 09:00-18:00                                       | 09:00-16:00 | 09:00-17:00 |
| 경희궁        | -           | 09:00-18:00 | -   | 09:00-18:00                                       | -           | 09:00-18:00 |

※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덕수궁, 창덕궁, 경희궁) 매주 화요일(경복궁, 창경궁)

### 나. 문화재안내원 제도

문화재청에서는 고궁 문화재, 궁중 생활상, 역사적 사건 등을 관람객에게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설명하기 위해 고궁 문화재안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2월 처음으로 고궁 문화재안내원 모집과 1차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각 궁궐 현장에 문화재안내원을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서울의 5대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내원은 총32명이며 각 궁별 인원 배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lt;표2-7&gt; 고궁 문화재안내원 활동인원

(2004년 현재 기준)

| 구 분 | 국 어 | 영 어 | 일 어 | 중국어 | 계  |
|-----|-----|-----|-----|-----|----|
| 경복궁 | 1   | 3   | 2   | 2   | 8  |
| 창덕궁 | 2   | 5   | 7   | 2   | 16 |
| 창경궁 | 1   | -   | 1   | -   | 2  |
| 덕수궁 | -   | 2   | 1   | 1   | 4  |
| 경희궁 | 1   | 1   | -   | -   | 2  |
| 계   | 5   | 11  | 11  | 5   | 32 |

(비고) 경희궁: 안내자원봉사자, 그 외 4대궁: 고궁 문화재안내원

궁궐 외국어 안내의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보면 실제 관광객의 안내 수요에 비해 공급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고궁 문화재안내원 활동기록에 따르면 문화재안내원 1인당 총5천5백명이 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안내를 제공하였다. 언어권별 안내 수급분석 결과, 일본어 안내의 경우 특히 관람객 수요에 비해 공급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안내인력을 추가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lt;표2-8&gt; 궁궐 외국어 안내 수급 현황

(기간: 2004년 1월-6월)

| 장소  | 언어권 | 공급인력 | 안내 이용자   |
|-----|-----|------|----------|
| 경복궁 | 영어  | 3명   | 4,633명   |
|     | 일본어 | 2명   | 2,146명   |
|     | 중국어 | 2명   | 1,228명   |
| 창덕궁 | 영어  | 5명   | 19,527명  |
|     | 일본어 | 7명   | 68,441명  |
|     | 중국어 | 2명   | 2,155명   |
| 창경궁 | 일본어 | 1명   | 5,071명   |
| 덕수궁 | 영어  | 2명   | 10,021명  |
|     | 일본어 | 1명   | 20,122명  |
|     | 중국어 | 1명   | 11,693명  |
| 총 계 | -   | 26명  | 145,037명 |

(자료) 문화재청 고궁 문화재안내원 활동기록 (단 경희궁 제외)

## 제2절 관광마케팅 분석

### 1. 수요자

#### 가. 관람인원

지난 2003년 기준 연간 공궐 관람객 수는 경복궁 273만명, 덕수궁 126만명, 창경궁 73만명, 창덕궁 47만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궐 관람객의 거의 대부분이 내국인 무료 관람객에 해당한다. 경복궁과 창덕궁은 연간 외국인 관람인원이 각각 50만명, 14만명 내외로 서울의 5대궁 가운데 외국인 방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관람인원 대비 외국인 관람객의 구성 비율은 창덕궁(29.8%), 경복궁(18.3%), 덕수궁(7.1%), 창경궁(4.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희궁은 연중 무료 개방되고 있어 정확한 관람인원 집계가 거의 불가능하나, 연간 관람객 규모는 총 10만명 수준이며 그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 수는 1천명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2-9> 공궐 관람인원 현황

| 구 분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증감율(%) |
|-----|-----|-----------|-----------|-----------|-----------|-----------|--------|
| 경복궁 | 유 료 | 1,227,171 | 1,106,818 | 1,133,593 | 1,086,814 | 939,345   | ▽13.6  |
|     | 무 료 | 2,272,550 | 1,832,710 | 2,346,880 | 2,019,140 | 1,789,027 | ▽11.4  |
|     | 계   | 3,499,721 | 413,035   | 3,480,473 | 3,105,954 | 2,728,372 | ▽12.2  |
|     | 외국인 | 745,325   | 741,960   | 714,264   | 645,536   | 501,970   | ▽22.2  |
| 창덕궁 | 유 료 | 360,554   | 377,939   | 446,229   | 459,922   | 423,981   | ▽7.8   |
|     | 무 료 | 31,454    | 35,096    | 46,250    | 45,796    | 47,175    | △3.0   |
|     | 계   | 392,008   | 413,035   | 492,479   | 505,718   | 471,156   | ▽6.8   |
|     | 외국인 | 111,295   | 142,352   | 151,486   | 177,292   | 139,067   | ▽21.6  |
| 창경궁 | 유 료 | 340,890   | 303,464   | 316,731   | 323,251   | 257,304   | ▽20.4  |
|     | 무 료 | 340,397   | 254,462   | 484,968   | 515,470   | 474,496   | ▽7.9   |
|     | 계   | 681,287   | 557,926   | 801,699   | 838,721   | 731,800   | ▽12.7  |
|     | 외국인 | 26,581    | 14,490    | 17,791    | 31,435    | 26,962    | ▽14.2  |
| 덕수궁 | 유 료 | 559,103   | 649,491   | 613,580   | 481,239   | 493,801   | △2.6   |
|     | 무 료 | 585,818   | 822,500   | 771,408   | 635,960   | 767,041   | △20.6  |
|     | 계   | 1,144,921 | 1,471,991 | 1,384,988 | 1,117,199 | 1,260,842 | △12.9  |
|     | 외국인 | 139,790   | 179,560   | 98,741    | 120,158   | 94,770    | ▽21.1  |

(자료) 문화재청 공능활용과 통계현황자료, 2004년 1월

## 나. 관련 조사결과

지난 2003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한 외래관광객의 고궁 방문 비율은 2000년 34.9%, 2001년 38.2%, 2002년 38.7%, 2003년 36.5%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궁은 서울의 대표적인 방문명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명동에 비해 방문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2-10> 외래관광객 서울 내 방문지

| 방문지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
| 동대문시장    | 47.4% | 51.6% | 46.5% | 45.5% |
| 남대문시장    | 50.5% | 56.1% | 53.2% | 44.7% |
| 명 동      | 41.2% | 44.2% | 45.2% | 38.9% |
| 고 궁      | 34.9% | 38.2% | 38.7% | 36.5% |
| 이태원      | 36.0% | 30.6% | 29.8% | 30.2% |
| 박물관(기념관) | 30.4% | 32.0% | 31.0% | 30.1% |
| 롯데월드     | 27.8% | 31.3% | 26.3% | 27.4% |
| 인사동      | 14.9% | 16.5% | 19.1% | 20.0% |
| 남 산      | 12.4% | 14.1% | 12.6% | 15.1% |
| 압구정동     | 4.5%  | 6.3%  | 5.3%  | 5.0%  |
| 기 타      | 11.9% | 13.3% | 22.9% | 24.7% |

(자료) 한국관광공사, 2003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외래관광객의 거주국별 고궁 방문비율을 살펴보면 태국(70.1%), 싱가포르(65.1%), 호주(58.5%), 프랑스(55.4%), 캐나다(54.1%), 독일(51.3%) 등의 순으로 동남아시아, 유럽인 관광객들의 고궁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22.0%)과 대만(28.5%) 거주 외래관광객은 서울의 고궁 방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2-11> 외래관광객 거주국별 고궁 방문 현황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
| 전체  | 34.9% | 38.2% | 38.7% | 36.5% |
| 일본  | 25.5% | 33.8% | 33.2% | 22.0% |
| 중국  | 45.8% | 54.1% | 61.7% | 44.6% |
| 싱가폴 | 55.6% | 46.4% | 52.5% | 65.1% |
| 대만  | 38.2% | 28.6% | 47.6% | 28.5% |
| 호주  | 54.3% | 44.2% | 44.8% | 58.5% |
| 태국  | 60.5% | 53.5% | 57.8% | 70.1% |
| 캐나다 | 51.0% | 50.0% | 48.7% | 54.1% |
| 영국  | 38.0% | 37.7% | 40.4% | 44.0% |
| 독일  | 52.2% | 53.9% | 45.7% | 51.3% |
| 프랑스 | 51.2% | 59.8% | 49.2% | 55.4% |

(자료) 한국관광공사, 2003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지난 2004년 7월 서울의 궁궐에서 총449명의 내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40.4%)보다 여성(59.6%)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대학생이나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 이용자가 많았다(문화재청, 2004). 궁궐 내국인 이용자 대부분이 서울시(50.0%)나 경기도(19.9%)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동료·친구(39.3%), 가족(33.0%)과 동행하여 방문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97.8%가 향후 궁궐을 재방문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8월 궁궐 외국인 관광객 총4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일본 국적의 관람객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한 궁궐에서는 평균 1시간 정도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궁궐 문화재 보존관리, 궁중 문화 체험기회 확대, 안내정보 및 해설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나타났다.

<표2-12> 궁궐 내국인 이용자 설문 응답자 특성

| 항 목    | 구 분     | 비 율   |
|--------|---------|-------|
| 성 별    | 남       | 40.4% |
|        | 여       | 59.6% |
| 학 력    | 무응답     | 1.1%  |
|        | 중졸이하    | 0.2%  |
|        | 고졸이하    | 12.1% |
|        | 대 학생    | 27.2% |
|        | 대 학졸업   | 49.6% |
|        | 대 학원이상  | 9.8%  |
| 거주지    | 서울시     | 50.0% |
|        | 경기도     | 19.9% |
|        | 부산시     | 6.5%  |
| 동반자 유형 | 직장동료·친구 | 39.3% |
|        | 가족      | 33.0% |
|        | 배우자·연인  | 11.6% |
|        | 혼자      | 8.9%  |
|        | 학교·단체   | 6.0%  |
| 재방문 의도 | 있음      | 97.8% |

(자료) 문화재청, 2004, 고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활용방안

## 2. 이미지

### 가. 관광이미지의 정의

Kotler(1988)는 이미지란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신념이나 인상 등의 집합으로써 자신이 지각하고 중요하게 고려하는 관점에 대한 평가”라고 하였다. Gartner(1987)는 이미지의 구성이 어떤 압도적인 인상이나 고정관념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고 대상에 대한 경험이 없이도 형성되는 이미지의 비경험성을 강조하였다.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지를 방문하기 이전에 획득한 여러 형태의 정보나 관광지에서의 실제 경험을 통해 형성된 관광지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라 할 수 있다(이장주, 1997). Gunn(1972)은 관광지 이미지를 관광지 방문유무에 따라 유인적 이미지(induced image)와 유기적 이미지(organic image)로 구분하여 관광지 이미지를 관광행동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Baloglu & McCleary(1999)는 관광지 이미지가 자극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정보, 사회·심리적 동기, 인구통계학적 변수 등 요인에 의해 관광지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관광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서적 요인이 인지적 요인보다 관광지 이미지 형성에 보다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ern & Krakover, 1999). 정보의 다양성과 형태는 인지적 요인과 연관이 있으며 사회·심리적 관광동기는 정서적 요인 형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지는 내·외부적 자극과 반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관광이미지 형성과정은 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 나. 관광이미지의 중요성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객의 관광지 방문의사 결정과정 뿐만 아니라 재방문 의도, 관광객 주변 사람들이 해당 관광지에 대해 갖게 되는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태희, 1997; Baloglu & Mangaloglu, 2001; Kim, Crompton & Botha, 2000). 관광지 이미지 창출은 한 관광지 혹은 국가를 매력 있는 상품으로 인식시킴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이 그 곳을 방문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용상, 1999; Botha, Crompton & Kim, 1999; Tapachai & Waryszak, 2000). 일단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지속성을 띠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홍보 활동

이 절실히 요구된다. 관광목적지가 갖는 강점과 매력요소를 부각시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형성된 긍정적 이미지는 그 어떤 유형적·물리적 관광자원보다도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김성섭 외, 2003).

관광지 이미지의 중요성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특정 관광지를 선택하도록 의사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의 의사결정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에 근거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일반적이다. 특히 방문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잠재관광객들은 그들 개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특정 관광지의 방문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관광지 이미지는 효과적인 관광마케팅의 수단이 된다. 관광지 이미지는 국가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한 국가의 이미지는 새로운 관광이미지 창출이나 개선을 통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이태희, 1996; Roehl, 1990). 관광이미지는 표적시장에 대하여 관광목적지가 갖고 있는 차별성을 강조하여 다른 관광목적지와 상대적 비교우위를 확보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 다. 궁궐의 인지도 및 이미지

우리나라 궁궐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서울의 5대궁 가운데 경복궁과 창덕궁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경희궁의 경우 내국인들조차 정확한 명칭이나 존재 유무를 알지 못하고 있다. 조선 궁궐은 일제 식민지와 광복 이후 전쟁, 급변하는 근·현대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남은 모습마저 크게 왜곡되고 변형되었다. 궁궐은 비단 외형적으로만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궁궐 본연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조선 궁궐 가운데 창덕궁은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그 가치나 매력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이미지로 적극 활용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궁궐은 가격 면에서 매우 저렴하고 관람형태나 프로그램이 단조로우며, 국내·외 다른 자원과 비교할 때 특별한 차별성이 없는 평범한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향후 궁궐 관광상품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궁궐의 가치와 품격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나라 관광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3. 가격

가. 궁궐 관람요금

현행 내국인 궁궐 관람요금은 성인 개인의 경우 1,000원이며 청소년(19~24세) 개인의 경우 500원이다. 관람요금 기준에 따르면 연령 18세 이하, 65세 이상 또는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는 모두 무료 관람 대상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언어권별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 창덕궁의 경우 성인 개인 관람요금이 2,300원이며 청소년(7~24세) 개인의 경우 1,200원 수준이다. 최근 개방된 옥류천 특별관람 코스의 요금은 1인당 5,000원이며 무료 관람이나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경우 무료 관람 대상이 6세 이하 어린이로서 내국인 기준보다 다소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희궁은 연중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표2-13> 궁궐 관람요금

| 구 분            | 내국인    |                |                   |
|----------------|--------|----------------|-------------------|
|                | 어 른    | 청 소년(19세-24세)  | 단 체               |
| 경복궁<br>창경궁·덕수궁 | 1,000원 | 500원           | 어른 800<br>청소년 400 |
| 창덕궁            | 2,300원 | 1,200원(7세-24세) | -                 |
| 경희궁            | 무료     | 무료             | 무료                |
| 구 분            | 외국인    |                |                   |
|                | 어 른    | 청 소년(7세-24세)   | 어린이(6세 이하)        |
| 경복궁<br>창경궁·덕수궁 | 1,000원 | 500원           | 무료                |
| 창덕궁            | 2,300원 | 1,200원         | 무료                |
| 경희궁            | 무료     | 무료             | 무료                |

궁궐 관람요금은 국내 다른 문화활동이나 문화시설 이용료, 외국의 궁궐 관람요금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금액이다. 무료 관람객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범위 역시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정확한 관람인원 집계와 문화재 보존관리상 문제가 되고 있다. 궁궐 운영의 효율화 개선을 위해서도 관람요금의 현실화, 무료관람객의 유료화,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등 대책이 요구된다(문화재청, 2004).

<표2-14> 관람요금 비교표 (성인1인 기준)

|    |                   |                   |                     |                    |                     |
|----|-------------------|-------------------|---------------------|--------------------|---------------------|
| 국내 | 궁궐관람              | 영화관람              | 연극관람                | 미술전시               | 대중가요<br>콘서트         |
|    | 1,000원            | 7,000원<br>~8,000원 | 10,000원<br>~20,000원 | 3,000원<br>~10,000원 | 30,000원<br>~70,000원 |
| 국외 | 중국 자금성            | 교토 이조성            | 프랑스<br>베르사유 궁전      | 영국<br>버킹검 궁전       | 오스트리아<br>헨브룬 궁전     |
|    | 14,530원<br>(100元) | 6,380원<br>(¥600)  | 17,270원<br>(€12.0)  | 24,060원<br>(£11.5) | 11,512원<br>(€8.0)   |

나. 궁궐 관광상품 가격

외국인 국내여행(인바운드) 전문여행사가 제공하고 있는 궁궐 관련 관광상품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방문코스는 청와대(경유)→경복궁→민속박물관→조계사→인사동(이태원), 창덕궁→인사동→남대문(동대문)시장→서울타워, 창덕궁→종묘→수원화성 등이었다. 오전 또는 오후 반나절 관광상품의 경우 관광객 1인당 가격이 25,000원~40,000원 수준이었으며, 1일 전일 관광상품의 경우 1인당 가격이 65,000원~90,000원 수준이었다. 덕수궁과 창경궁은 각각 경복궁과 창덕궁의 휴관일에 대체 관광지로 포함되어 있으며 경희궁 방문을 포함하는 관광상품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표2-15> 궁궐 관광상품 가격예시 (1인 기준)

| 상품명     | 소요시간        | 포함내용  | 가격      |
|---------|-------------|---|---------|
| 경복궁     | 09:00~12:30 | 청와대 경유,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조계사, 고려인삼센터, 이태원            | 28,000원 |
| 궁궐·전통   | 13:00~17:30 | 창덕궁과 후원 관람, 인사동, 남대문시장, 자수정공장                     | 30,000원 |
| 수문장교대의식 | 13:00~18:00 | 덕수궁 수문장교대의식, 국립현대미술관, 궁중유물전시관, 고려인삼센터, 월드컵경기장, 종묘 | 40,000원 |
| 세계문화유산  | 09:00~17:00 | 창덕궁과 후원 관람, 종묘, 고려인삼센터, 점심, 수원화성                  | 98,000원 |

(자료) Cosmojin Travel Service Co., Ltd

## 4. 홍보

### 가. 홍보 내용 및 대상

궁궐 관광홍보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관람인원의 정확한 집계나 수요자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부족하여 마케팅적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의 궁궐 홍보는 수요자 시장을 세분화하여 특정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되지 못했다. 일반 민간 여행업체 홍보 브로셔와 관광안내지도는 경복궁과 창덕궁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경복궁의 경우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창건하였으며 1592년 임진왜란에 의해 소실되었다가 근년 다시 복원된 궁궐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 한양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선의 대표적인 법궁으로서 경복궁의 가치와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창덕궁의 경우 조선 궁궐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궁궐 문화유산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그 가치와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래픽이 필요하다. 경복궁과 창덕궁의 대체 관광지인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에 관한 안내정보는 매우 미미하다.

### 나. 홍보물 개발 투자

궁궐 관람객을 위한 안내브로서는 관리주체의 투자예산 부족으로 인해 그 내용이나 질적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창덕궁은 자체적으로 (재)아름지기와 국내 유명 기업의 후원을 통해 고급화된 브로셔를 일부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궁궐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안내지도, 브로셔 제작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서적, 유명 사진집, 비디오 영상물, 기념품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 궁궐의 역사, 문화, 예술, 건축, 조경, 생활상, 자연 등 다양한 테마에 관한 고급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외 홍보 및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여러 조사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여행정보 획득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관광홍보는 지리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정보의 보급 능력이 뛰어나고 기존 인쇄물에 비해 홍보비용이 절감되며 언제든지 손쉽게 수정·보완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등 조선의 5대 궁궐에 관한 통합적인 관광안내홍보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각 궁궐에 관한 외국인 안내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제3절 분석결과 종합

### 가. 궁궐 문화유산의 관광잠재력

궁궐은 우리 민족이 이루어낸 최고의 문화유산으로서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과 가치가 매우 높다. 궁궐 건축은 당대 최고의 자재와 기술로 이루어졌으며 왕과 왕의 가족 뿐 만 아니라 궁녀, 노복, 관원, 군인, 내시 등 다양한 신분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생활하던 공간이었다. 왕과 왕비를 위한 궁궐·왕릉·종묘는 최고의 건축물이었으며 이곳에서 시행되던 각종 의식과 무용, 음악에는 당대 문화예술 역량이 종합되었다. 경복궁은 조선 제일의 궁궐로서 과거 한양의 도시계획과 궁궐 건축의 전체 규모, 배치, 구성 및 짜임새를 보여주는 대표 문화유산이다. 창덕궁은 가장 오랜 기간 임금이 거쳐했던 궁궐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룬 조선 궁궐 건축의 비정형적 조형미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창덕궁 후원은 다양한 정자, 연못, 수목, 괴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다.

창경궁은 궁중여성의 생활문화와 주거문화 중심의 개방적인 체험공간으로 개발하여 창덕궁의 보완적인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다. 덕수궁은 궁궐 영역의 대부분이 잘려 나가고 변형과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 관광매력이 부족한 편이나 지리적인 접근성, 문화예술행사의 인지도, 정동 일대 주변 자원들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경희궁은 현존하는 5대 궁궐 가운데 가장 심하게 훼손된 궁궐로서 보존가치나 관광매력이 가장 부족한 편이나 신규 복원된 건물을 활용하여 개방적인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인근의 서울역사박물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나. 기존 고궁 관광자원화 사업의 문제점

지난 1995년 이후 고궁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궁중의례 재현행사는 대부분 상설화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또한 일반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단순한 보여주기에 그쳐 관광객의 큰 흥미나 감동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궁중의례 재현행사는 주로 경복궁 근정전, 창경궁 명정전, 종묘 정전 일대를 중심으로 국왕과 왕실의 관점에서 시행된 행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조선 궁중 문화는 왕과 왕비 등 지배자만의 문화가 아니라 그것을 직접 창조한 수많은 장인과 지식인들의 피와 땀이 종합된 것이었다. 따라서 국왕과 왕실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당대 궁중 문화를 창조했던 건축가, 예술가, 장인, 궁녀, 관원, 내시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상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조선 궁중 문화의 가치와 품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충실한 고증 연구의 토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다. 향후 궁궐 문화관광상품의 개발방향

궁궐 관람인원 집계에 따르면 경복궁은 최근 외국인 관람객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창덕궁은 보유 문화재나 관광잠재력에 비해 외국인 관람객의 방문 비율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경복궁과 창덕궁은 서울 시내관광의 인기 있는 방문코스 중 하나이지만 평균 체재시간이 1시간 내외로 장시간 체류형 관광지가 아닌 단순한 경유형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궐 현장에서 조선 궁중의 역사, 문화, 생활상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과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중저가(中低價) 패키지 상품 위주에서 벗어나 궁궐의 가치와 품격에 걸맞는 양질의 관광상품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전문가이드와 안내정보는 관광객의 방문경험과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그러나 현재 궁궐 전문 안내인력은 관람객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다양한 외부 단체와 개인에 의한 안내가 이루어지면서 해설의 전문성이나 역사적 진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궁궐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관광객에게 적절한 관람지침과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복궁 내 조성 중인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은 종합적인 방문객센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해설매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궁궐의 관광이미지는 관광지 방문의사 결정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이미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궁궐 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개선을 위해 대외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조선 제일의 법궁인 경복궁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창덕궁을 활용한 매력적인 관광이미지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은 경복궁과 창덕궁을 보완하는 연계 관광지로서 개방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상세한 안내정보와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 제3장 조사 분석

### 제1절 전문가 설문조사

####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궁궐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04년 8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편 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총 150부의 설문지가 발송되었으며 그 중 68명(45.3%)이 본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49.2%는 남성, 50.8%는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0세 정도로 나타났다. 본 설문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관련 대학 10.3%, 연구기관 17.6%, 안내·해설단체 48.5%, 문화재청 관계자 11.8%, 관련 단체 7.4%, 기타 4.4%로 구성되었다.

<표3-1> 설문 응답자 소속기관

|           | 응답률        |
|-----------|------------|
| 1. 대학교    | 10.3% (7)  |
| 2. 연구기관   | 17.6% (12) |
| 3. 안내해설단체 | 48.5% (33) |
| 4. 문화재청   | 11.8% (8)  |
| 5. 관련 단체  | 7.4% (5)   |
| 6. 기타     | 4.4% (3)   |

#### 2. 조사결과

##### 가. 궁궐 관람제도

본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3.2%는 현재 궁궐에서 제공되는 안내 정보와 설명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33.8%는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행 궁궐 관람요금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3.8%가 '매우 적다' 또는 '비교적 적다'고 응답하였다. 전문적인 해설이 제공될 경우 가장 적정한 궁궐 관람요금은 5,000원 정도라고 답한 응답자가 3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00원(19.1%), 2,000원(17.6%), 10,000원(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2> 궁궐 안내정보와 설명에 대한 만족도

|                | 응답률        |
|----------------|------------|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3.2% (9)  |
| 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33.8% (23) |
| 3. 보통이다        | 25.0% (17) |
| 4. 비교적 만족한다    | 25.0% (17) |
| 5. 매우 만족한다     | 2.9% (2)   |

※평균(M)=2.7 표준편차(SD)=1.1

<표3-3> 현행 궁궐 관람요금의 적정여부에 관한 의견

|           | 응답률        |
|-----------|------------|
| 1. 매우 적다  | 42.6% (29) |
| 2. 비교적 적다 | 41.2% (28) |
| 3. 적정하다   | 16.2% (11) |
| 4. 비교적 많다 | 0% (0)     |
| 5. 매우 많다  | 0% (0)     |

※평균(M)=1.7 표준편차(SD)=0.7

<표3-4> 전문해설 제공시 적정한 관람요금

|            | 응답률        |
|------------|------------|
| 2,000원     | 17.6% (12) |
| 3,000원     | 19.1% (13) |
| 5,000원     | 39.7% (27) |
| 10,000원    | 14.7% (10) |
| 15,000원    | 1.5% (1)   |
| 20,000원 이상 | 1.5% (1)   |
| 기타         | 5.9% (4)   |

나. 궁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현재 서울의 궁궐 문화유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해 전체 응답자 중 32.4%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7.4%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궁궐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전문인력 확충’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리에산 증대(20.6%)’, ‘기반시설 정비(14.7%)’, ‘법제도 개선(8.8%)’, ‘관리지침 수립(4.4%)’, ‘관리조직 확대(4.4%)’, ‘기타(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궁궐 문화재에 대한 관람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본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5.8%가 경희궁을 서울의 다른 궁궐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지자체)가 아닌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많은 훼손이 가해졌던 덕수궁과 경희궁,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즉위 의식이 거행되었던 원구단,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사직단, 궁궐 안에 설치된 관서였던 궐내각사 등을 시급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표3-5> 궁궐 보존관리를 위한 개선사항

|            | 응답률        |
|------------|------------|
| 1. 전문인력 확충 | 44.1% (30) |
| 2. 관리예산 증대 | 20.6% (14) |
| 3. 기반시설 정비 | 14.7% (10) |
| 4. 법·제도 개선 | 8.8% (6)   |
| 5. 관리지침 수립 | 4.4% (3)   |
| 6. 관리조직 확대 | 4.4% (3)   |
| 7. 기타      | 2.9% (2)   |

<표3-6> 경희궁 관리주체 문화재청 이관 필요성

|              | 응답률        |
|--------------|------------|
| 1. 전혀 그렇지 않다 | 6.1% (4)   |
| 2. 별로 그렇지 않다 | 10.6% (7)  |
| 3. 보통이다      | 7.6% (5)   |
| 4. 비교적 그렇다   | 16.7% (11) |
| 5. 매우 그렇다    | 59.1% (39) |

※평균(M)=4.1 표준편차(SD)=1.3

다. 궁궐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5.6%가 고궁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궁중의례 재현행사와 궁중 생활상 재현전시가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재현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기존의 재현사업은 충실한 고증을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행사 인력이나 복식, 소품의 질이 낮아 오히려 궁중 문화의 가치와 품격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단순히 보여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의 직접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기보다는 상설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한편 본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58.2%가 야간 궁궐 활용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3-7> 고궁 관광자원화사업의 재현성 여부

|              | 응답률        |
|--------------|------------|
| 1. 전혀 그렇지 않다 | 0% (0)     |
| 2. 별로 그렇지 않다 | 45.6% (31) |
| 3. 보통이다      | 27.9% (19) |
| 4. 비교적 그렇다   | 23.5% (16) |
| 5. 매우 그렇다    | 2.9% (2)   |

※평균(M)=2.8 표준편차(SD)=0.9

<표3-8> 야간 궁궐 활용 확대에 관한 의견

|              | 응답률        |
|--------------|------------|
| 1. 전혀 그렇지 않다 | 32.8% (22) |
| 2. 별로 그렇지 않다 | 25.4% (17) |
| 3. 보통이다      | 11.9% (8)  |
| 4. 비교적 그렇다   | 19.4% (13) |
| 5. 매우 그렇다    | 10.4% (7)  |

※평균(M)=2.5 표준편차(SD)=1.4

각 궁궐의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경복궁의 경우, 조선을 대표하는 정궁으로서 격조 높은 궁중의례 재현, 궁중문화와 과학 체험, 청와대 연계 코스 개발, 조선왕궁역사박물관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창덕궁의 경우 현행과 같이 제한적인 관람 제도를 유지하되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 홍보를 강화하고 후원의 풍류 문화와 궁중 생활문화를 적극 소개할 필요가 있다. 창경궁은 궁중여성문화 체험행사를 개발하고 일제에 의한 궁궐 훼손과 궁중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덕수궁의 경우 주변 정동과 연계한 관광코스 및 대한제국 궁중 문화와 의례 재현 등을 제안하였다. 궁중문화 체험콘텐츠의 경우 궁중음식 체험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내의원 궁중의학, 궁중 화장실 문화, 궁중 복식과 풍속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서울의 5대궁과 연계 가능한 자원으로는 서울 도성과 청계천, 육조거리와 윤중가, 한강 불꽃놀이 축제, 하이서울 페스티벌, 명성황후 이야기 등을 제안하였다.

<표3-9> 각 궁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

| 구 분 | 활용 방안   |
|-----|---|
| 경복궁 | 왕실의 권위를 보여주는 정궁으로 활용, 근정전 중심 격조 높은 궁중의례 재현<br>궁중생활 체험공간, 내외국인 대상 관광자원화, 궁중문화 전시공연 도입<br>수문장 교대의식 위용과 복식 재정리, 집현전의 형상화(과학기구 설치),<br>구 총독부 청사 활용, 청와대 연계 프로그램 개발, 조선왕궁역사박물관 활용<br>전문적인 안내제도 체계화, 궁궐 모형 배치 및 건축 이해 |
| 창덕궁 | 후원 문화 소개, 세계문화유산 홍보 강화, 궁중 생활문화 재현전시, 종묘와 연계<br>보존 우선의 제한적 관람제도 유지, 예약제도 도입, 탄력적 안내제도 운영  |
| 창경궁 | 궁중 여성문화 관련 재현행사 복원, 일제 식민지하 궁궐 훼손의 역사 교육<br>창경원 과거 이미지 탈피, 다양한 궁중 역사 소개, 여가·휴식공간 제공   |
| 덕수궁 | 원형 복원 시급, 도시민 여가·휴식공간, 대한제국 궁중문화 전시 중심, 주변<br>정동 지역과 연계 프로그램, 대한제국 관련 재현행사  |

<표3-10> 궁중문화 체험콘텐츠 제안

| 구 분  | 체험콘텐츠   |
|------|---|
| 재현행사 | 궁중 진찬·연회 재현, 제례문화, 조희 행사, 연경당 재현전시, 친경례 재현  |
| 체험행사 | 고건축 내부 자원봉사 청소, 궁중복식·장신구 착용 체험  |
| 궁중과학 | 보루각, 자력루(물시계) 작동원리, 앙부일구, 측우기 다루는 방법  |
| 궁중문화 | 궁중음식, 궁중복식, 궁중기록화, 궁중유물, 왕세자 교육, 궁중풍속, 궁중무용 등<br>소주방·수라간 궁중음식 체험, 내의원 궁중의학, 궁중 화장실 문화, 놀이문화 |

## 제2절 해외 유사사례 분석

###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5대궁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영국 버킹검 궁,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 오스트리아 쉰브룬 궁 등 유럽의 대표적인 유사사례에 관한 인터넷 정보 검색과 관련 여행서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각 사례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관람제도, 관람형태, 관광상품 프로그램, 이벤트, 연계 관광지 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5대궁 관광상품 개발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 조사결과

#### 가. 영국 버킹검(Buckingham Palace)

##### 1) 개요



트라팔가 광장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영국 입헌군주 정치의 중심인 버킹검 궁전(Buckingham Palace)은 영국 여왕의 런던 공식 거주지이다. 1702년 버킹검 공작의 런던 사택으로 지어졌고, 1762년 조지 3세가 사들여 왕족들이 거주하는 여러 저택중의 하나로 지정하였다.

다. 조지 4세가 존 내쉬(John Nash)를 고용해 구저택 주위로 새로운 건물을 짓도록 명령했고, 내쉬는 대리석 아치 입구가 인상적인 건물을 완성했다. 나중에 이 대리석 아치는 하이드 파크로 옮겨졌다. 이곳은 1837년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처음으로 왕족의 런던 거주지로 지정되었다. 버킹검 궁전은 1993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람브란트, 루벤스, 카나레토 등의 작품이 포함된 대규모의 왕실 소장품을 전시하는 픽처 갤러리(Picture Gallery)를 관람할 수 있다. 버킹검 궁전은 왕실 근위병 교대식으로 유명하다. 격일로 행해지며 오전 11시경부터 시작되고 약 45분간 진행된다. 장대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확히 72cm의 보폭으로 걷는 근위병들의 모습은 색다

른 재미를 제공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여름휴가 기간인 8월초부터 약 2달 동안 버킹검 궁전을 특별 개방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수년 전 윈저성의 화재 복구비를 조달 하는데 쓰이고 있다. 연간 5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회와 오찬, 만찬, 리셉션 등에 초대되어 이곳 버킹검 궁전을 방문하고 있다.

## 2) 관람제도

### ① 관람시간

- 7월31일~ 9월 26일: 오전10시~ 오후 5시30분 (입장은 4시 30분까지)
- \* 여왕이 여름휴가로 궁전을 비우는 8월에서 9월, 약 두 달간 개방
- \* 개방 기간 중 휴관일 없음

### ② 입장료(오디오투어 포함)

(화폐단위: 파운드)

|                            | 일 반   | 단체(15인 이상) |
|----------------------------|-------|------------|
| 성 인                        | 12.95 | 11.50      |
| 5세 미만                      | 무 료   | 무 료        |
| 유소년<br>(5세-17세)            | 6.50  | 6.00       |
| 학 생                        | 11.00 | 9.50       |
| 60세 이상                     | 11.00 | 9.50       |
| 패밀리 카드<br>(성인2명, 17세미만 3명) | 32.50 | .          |

\* 티켓은 사전예매하며 단체는 사전예약 필수

## 3) 이벤트

### ① 근위병 교대식(Changing of the Guard)

- 행사시기: 4월~6월(매일)  
7월~3월(격일)
- 행사시간: 오전 11시 30분
- 소요시간: 약 40분



#### 4) 연계 관광지

##### ① 트라팔가 광장 (Trafalgar Square)

영국의 영웅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841년에 완성된 광장으로 실물의 3배 크기인 560cm의 넬슨 제독의 동상과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국의 국가 동물인 라이온상, 분수 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영국다운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다. 라이온 동상은 대승을 기념하는 뜻으로 노획한 프랑스의 대포를 녹여서 만든 것으로 4면의 철판부조에는 트라팔가 해전, 나일강 해전, 덴마크·러시아·스페인 연합함대와의 전투기록이 담겨져 있다.

##### ② 대영 박물관 (British Museum)

세계 3대 박물관 중의 하나로 러셀 광장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세계적인 박물관이다. 특히 전성기의 그리스 문화와 고대 이집트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1759년에 세워 졌으며, 1823년부터 50년까지 약 30여년에 걸쳐서 83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방으로 건축되어 졌다. 대영 박물관은 4층 건물로 주요한 전시물은 주로 1, 2층에 전시되어져 있다. 3대 인기 전시물은 미라(방60호), 엘진 대리석(8호), 5천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로제타 스톤(25호)이며 그 밖의 전시물은 앗시리아 라마스 상(방 20호), 람세스 2세(25호), 파르테논 신전, 네레이트 제전(7호), 아메노피스 3세(25호), 목각의 관(25호)등이다.

#### 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Chateau de Versailles)

##### 1) 개요

지금의 베르사유 궁전은 원래 있던 사냥을 위한 왕의 숙소와 이를 둘러싼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1668년 루이 르 보가 새로운 성을 건설함으로써 그 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사냥 숙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건물들을 나란히 지으면서 점점 확대되어 정원까지 조성되었다. 1671년 샤를 르 브룅이 성의 내부를 장식했고 1682년 루이 14세와 그의 왕비가 베르사유 궁전으로 이주하면서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했다. 1715년 루이 14세의 사망 이후 1772년 루이 15세가 베르사유를 승계하였다. 1774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베르사유에 거주했으며 1789년 프랑스 혁명





의 발발로 왕과 왕비가 파리로 이송되면서 찬란한 왕정문화의 빛도 베르사유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793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형을 당했으며 그 후 1833년 루이 필리프가 베르사유 성을 박물관으로 개조한 후 일반인에게 개방하였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17~18세기에 걸친 프랑스 왕정사를 찬찬히 훑어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궁전이 그 궤를 같이 해왔기 때문이다. 베르사유 궁전은 탁월한 내부 장식과 조경, 건축미 가치를 인정받아 197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 관람제도

① 관람시간

|                  | 관람시간   | 휴관일                        |
|------------------|--|----------------------------|
| 베르사유             | 5월~9월- 9:00am~6:30pm<br>10월~4월- 9:00am~5:30pm  | 월요일, 국경일                   |
| King's Chamber   | 4월~10월- 9:00am~5:30pm<br>11월~3월- 9:00am~4:30pm | 월요일<br>첫째 일요일(11월~3월)      |
| State Apartment  | 4월~10월- 9:00am~6:30pm<br>10월~3월- 9:00am~5:30pm |                            |
| Guided visits    | 10:00am~3:30pm<br>(당일 오전9시부터 예약필수)             | 월요일, 국경일<br>첫째 일요일(11월~3월) |
| 그랑트리아농<br>쁘띠트리아농 | 11월~3월- 12:00~5:30pm<br>4월~10월- 12:00~6:30pm   | 국경일                        |

② 입장료

(화폐단위: 유로)

|                 | 기본 관람료                | King's Chamber | State Apartments | Guided visits                                   | 그랑트리아농<br>쁘띠트리아농 |
|-----------------|-----------------------|----------------|------------------|---|------------------|
| 성 인             | 7.50                  | 4.50           | 7.50             | 4.00(1h)<br>6.00(1.5h)<br>8.00(2h)              | 5.00             |
| 학 생             | 5.30                  |                |                  |   |                  |
| 단 체<br>(10인 이상) | 4.60                  |                | 5.30             |   | 3.00             |
| 연 회원권           | 33.60<br>50.50(동반 1인) |                |                  |   |                  |
| 18세 미만          | 무료                    | 무료(10세미만)      | 무료               | 3.00(1h)<br>4.00(1.5h)<br>6.00(2h)<br>무료(10세미만) | 무료               |

\* 정원 무료 입장

③ 관람형태

- Audio Tour: 루이 14세의 방과 거울의 방, Dauphin and Dauphine의 아파르트망에서 이용가능하며 8개국 언어가 준비되어 있다. 투어 시간은 약1시간이다.
- Guided Tour: 가이드 투어는 개별 방문객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부분(루이 15세, 루이 16세, 마리 앙뜨와네트의 개인 아트망, 오페라의 방, 예배당 등)이 포함된다. 투어 소요 시간은 약 90분 정도이며, 가격은 투어 소요 시간에 따라 다양하다.
- Autonomous Tours: 자유관람은 그랑 아파르트망, 거울의 방, 왕비의 침실과 프랑스 역사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으며 박물관은 사전 예약해야 관람이 가능하다.

3) 이벤트

① 분수쇼(the Fully Play of Fountains)

- 행사명: Grandes Eaux Musicales(위대한 음악)
- 행사시기: 5월~9월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② Fêtes de Nuit(The Night Lights)

- 행사명: "le Chevalier de Saint-George"
- 행사시기: 8월 28,29일, 9월 2,4,9,11일



4) 관광상품 프로그램

|               |         |  |
|---------------|---------|--|
| 평일코스          | 10am    | 왕의 침실 관람                               |
|               | 12pm    | State Apartment                        |
|               | 1pm     | 미니 열차를 타고 the Fottille Restaurant로 이동  |
|               | 1:30pm  | 점심식사                                   |
|               | 3pm     | 그랑 트리아농                                |
|               | 4pm     | 쁘띠 트리아농                                |
|               | 4:30pm  | 공원 숲 산책, 마차 타기                         |
| 주말코스<br>(토요일) | 10am    | State Apartment                        |
|               | 11am    | Guided visit to the private apartments |
|               | 1pm     |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식사                           |
|               | 2pm     | Coach박물관 관람(5월~10월)                    |
|               | 3pm     | 왕의 침실 관람                               |
|               | 5pm     | 콘서트(행사프로그램)                            |
|               | 8:30pm  | 쇼(영화, 야간축제, 공연 등)                      |
| 주말코스<br>(일요일) | 10am    | 미니열차                                   |
|               | 10:30am | The Queen's Hamlet                     |
|               | 12pm    | 그랑 트리아농과 뿌띠 트리아농                       |
|               | 1:30pm  | the Flottille Restaurant에서 점심식사        |
|               | 2:30pm  | 숲 산책, 보트나 마차타기                         |
|               | 3:30pm  | 음악분수(4월~10월)                           |

5) 연계 관광지

① The park and gardens

<park>

-도보, 자전거(1시간당 5유로), 보트(1인당 1시간 11유로)

-자동차 월~금: 4.50 유로 주말 및 국경일: 5.50 유로

-버스 : 29.00 유로

<gardens>

-관람시간: 7am~sunset, 8am~sunset (계절에 따라 오후5시반 또는 9시반)

-관람료 일반관람객: 5.50 유로(분수쇼 있는 날) / 3.00 유로(분수쇼 없는 날)

만10세~17세미만: 3.50 유로 할인

연 회원권: 20.00 유로

## 다. 오스트리아 쉐브룬 궁전(Palace and Gardens of Schonbrunn)

### 1) 개요



1996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오스트리아 쉐브룬 궁전은 1612년 마티아스 황제가 사냥 도중 발견한 아름다운(Schoen) 샘(Brunn)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쉐브룬 궁전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의 축소판으로 설명되곤 한다. 이것은 프랑스와의 알력이 한창일 때 오스트리아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베르사유 궁전보다 크게 증축하고자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과 병마로 인해 경제사정이 점점 악화되자 규모를 줄여 지금의 크기에 머물게 되었다. 쉐브룬 궁전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으로 사용되었으나 1805년, 1809년 나폴레옹에게 점령당했을 때는 나폴레옹군의 사령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나폴레옹의 기념비가 궁전 입구에 양쪽으로 서 있다.

궁전은 터키군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1700년 피셔 폰 에르라흐(Fischer von Erlach)에 의해 증축된 후 니콜라우스 파카시(Nikolaus Pacassi)의 대대적인 개축을 통해 1749년에 완성되었다. 지금의 쉐브룬은 파카시의 파격적인 개축으로 본래의 모습을 많이 잃었다는 비평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로코코 양식의 실내장식으로 꾸며져 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프란츠요셉 황제, 엘리자베스 황비 등이 이곳에서 생활했다. 화려한 궁전 내부에는 합스부르크 황실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1441개의 방중에 45개의 방만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는 당시 황제 Karl 1세가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의 종말을 선언한 곳이어서 오스트리아인들에게는 영광과 치욕이 공존하는 곳이다. 잘 정돈된 궁전의 프랑스식 정원과 1780년에 만들어진 바다의 신을 상징하는 넵툰분수(Neptunbrunnen),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기념으로 1775년 마리아테레지아 시대에 건립한 글로리테(현재 카페로 사용중)가 당시의 화려함을 대변한다.

2) 관람제도

① 관람시간

| 월별     | 관람시간          |
|--------|---------------|
| 4월~6월  | 8.30am~5pm    |
| 7월~8월  | 8.30am~6pm    |
| 9월~10월 | 8.30am~5pm    |
| 11월~3월 | 8.30am~4.30pm |

② 입장료

연령 기준에 따라 확실적인 관람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궁궐과는 달리 오스트리아 쾰른궁의 요금제도는 관람코스별로 다양한 패키지를 기획하고 그에 따라 세분화된 요금제도가 돋보인다.

(화폐단위 : 유로)

|                    | Imperial<br>Tour | Grand Tour | SB Pass<br>Classic | SB Pass<br>Gold | Sisi<br>Ticket | 가이드동행<br>추가요금 |
|--------------------|------------------|------------|--------------------|-----------------|----------------|---------------|
| 성인<br>(25세 이상)     | 8.00             | 10.50      | 14.90              | 36.00           | 19.00          | 2.50          |
| 유소년<br>(6세~15세)    | 4.30             | 5.40       | 7.50               | 18.00           | 9.50           | 1.00          |
| 학생<br>(16세~25세)    | 7.40             | 8.60       | 13.00              | 30.00           | 15.50          | 2.50          |
| 장애인                | 4.30             | 5.40       | ·                  | ·               | ·              | 1.00          |
| 학생 단체<br>(16세~25세) | 7.00             | 8.00       | ·                  | ·               | ·              | 2.50          |
| 학교 단체<br>(6세~15세)  | 3.20             | 4.30       | ·                  | ·               | ·              | 1.00          |
| 빈(Wien) 카드         | ·                | 9.60       | 13.00              | 30.00           | 17.00          | 2.50          |
| 패밀리 카드             | ·                | ·          | 33.00              | ·               | ·              | ·             |

- \* Imperial Tour: 22개의 방을 관람하며 10개 언어 오디오 해설이 지원되는 코스
- \* Grand Tour: 40개의 방을 관람하며 10개 언어 오디오 해설이 지원되는 코스
- \* SB Pass Classic: 기본적으로 Grand Tour를 할 수 있으며 the Privy Garden, the Maze & the Labyrinth, the Gloriette viewing terrace and the Court Bakery까지 관람하는 코스
- \* SB Pass Gold : SB Pass Classic코스가 가능하며 the Zoo, the Palm House, the Desert Experience House, the Carriage Museum 추가되는 코스
- \* Sisi Ticket : Grand Tour + Imperial Apartments & Sisi Museum & Imperial Silver Collection (Hofburg), Imperial Furniture Collection

3) 공연 및 패키지 프로그램

① 오랑제리 음악회

세계적인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 위치한 쾨브룬 궁은 비엔나의 명성에 걸 맞는 수준급의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 요한스트라우스가 남긴 주옥같은 곡을 연주함으로써 쾨브룬 궁을 찾는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오케스트라 뿐 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전통의상을 입은 발레단의 발레 쇼를 비롯해 오페라 가수의 오페라 공연도 관광객에게 제공된다. 음악회는 전통적으로 음악공연·축제가 열린던 오랑제리(Orangerie)에서 펼쳐진다.

| Orangerie 음악회 시간 및 요금제도 |                        |   |
|-------------------------|------------------------|---|
| 날짜별                     | 시간                     | 요금제도(단위: 유로)<br>(Deluxe/Grand/Imperial) |
| 4월~10월                  | 오후 8시 30분              | 50/43/36                                |
| 11월~12월23일<br>1월2일~3월   | 오후 8시 30분              | 50/43/36                                |
| 12월 25일, 30일            | 오후 8시 30분              | 54/47/40                                |
| 12월 31일                 | 오후 7시 00분              | 65/55/44(와인제공)                          |
| 1월 1일                   | 오후 4시 00분<br>오후 8시 30분 | 65/55/44                                |

② An Evening in Schoenbrunn

쾨브룬궁 투어, 쾨브룬궁 내 오스트리아 전통 식당에서의 저녁식사, 그리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조합한 세 종류의 패키지를 기획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관람욕구를 만족시켜준다.

| Package     | 쾨브룬<br>투어 | 디너 | 콘서트 | 요금제도(단위: 유로)<br>(Deluxe/Grand/Imperial) |
|-------------|-----------|----|-----|---|
| Package I   | ×         | ○  | ○   | 73/64/59                                |
| Package II  | ○         | ×  | ○   | 62/53/42                                |
| Package III | ○         | ○  | ○   | 83/75/68                                |

#### 4) 연계 관광지

##### ① 호프부르크 왕궁(Hofburg)

13세기부터 191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의 멸망 때까지 합스부르크 왕가가 살았던 궁전으로 현재는 대통령 집무실, 세계 최고의 스페인식 승마학교, 국제회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엔나 소년 합창단이 왕궁 내 성당인 Burgkapelle에서 7-9월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예배 찬양이 있다.

##### ② 슈테판 성당(Stephansdom)

1147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시작되어 고딕 양식으로 완성된 슈테판 성당은 모짜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이루어진 곳이다. 슈테판 성당은 137m의 첨탑과 25만 개의 벽돌(기와)로 만들어 진 모자이크 지붕이 특징이며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인 슈테판의 이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 ③ 자연사 박물관 (Naturhistorisches Museum)

1750년부터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집 보관 장소로 사용되던 곳을 건축가 Gottfried Semper 와 Carl Hasenauer의 손을 거쳐 1889년 8월 10일 현재의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박물관의 볼거리는 2만5천년 전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 117kg의 거대한 토파즈 원석, 1,500여개의 다이아몬드로 만든 마리아 테레지아의 보석 부케 등 3만 여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 제3절 시사점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궁궐에서 제공되고 있는 안내정보와 해설 서비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 궁궐 관람요금은 가격 면에서 극히 저렴하여 궁궐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궁중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유사사례와 같이 다양한 관람코스를 개발하고 궁중 문화예술 공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국 버킹검 궁이나 일본 황거의 경우 현재까지도 최고 권력자나 국가 원수가 궁궐에 기거하며 활동하고 있지만 더 이상 왕조시대가 오늘날 서울의 궁궐은 국왕이 존재하지 않는다. 궁궐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미래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문화유산이기에 보존과 조화된 관광자원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기존의 궁중의례 재현행사가 충실한 고증연구 토대가 부족하고 행사 소품이나 복식의 질이 낮아 조선 궁중 문화의 가치와 품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기보다는 상설화된 정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관광객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조선의 5대 궁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은 각 궁궐의 가치와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복궁의 경우 조선을 대표하는 법궁으로서 격조 높은 국가오례 재현을 전문화하고 현재 조성 중인 조선왕궁 역사박물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조선 궁궐의 원형을 간직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후원 영역을 중심으로 한 궁중 문화 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조선 궁궐은 궁중 음식과 복식, 의학, 풍속, 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이벤트를 기획해 볼 수 있다.

영국 버킹검 궁의 근위대 교대의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이벤트로 정착되었으며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경우 음악이 있는 분수 쇼, 야간 조명 등 다양한 볼거리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니 열차, 마차와 같은 독특한 운송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오스트리아 쾰른 궁은 관람코스별 세분화된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 음악회, 발레쇼, 오페라 공연,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상품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 제4장 5대궁 관광자원화 방안

### 제1절 목표 및 전략 설정

#### 1. 기본목표 설정

관광상품은 소비자인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공급자인 관광업체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수단적 개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5대 궁궐의 관광자원화 방안은 개별 관광업체의 상업적 이윤 추구를 핵심 목표로 하는 관광상품의 개발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궁궐 문화유산의 가치와 품격을 제대로 전달하고 우리나라 국가이미지와 관광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조선 궁궐은 우리 민족이 이루어낸 최고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궁궐은 당대 정치와 행정의 중심으로서 최고의 자재와 기술로 건축되었으며, 이곳에서 시행되던 각종 의식과 예술은 당대의 문화 역량이 집대성되었다. 또한 궁궐은 왕과 왕실 뿐 만 아니라 궁녀, 노복, 관원, 군인, 내시 등 다양한 신분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생활하던 공간이었다. 5대 궁궐을 활용하여 과거 조선의 삶·역사·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궁궐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긍정적인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궁궐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와 고부가가치 수익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가 점차 심화되어 관광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기존의 궁궐 관람은 주요 건물과 연혁 위주의 단순한 정보 제공에 불과하여 관람객의 큰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궁궐 관람객의 대부분이 내국인 무료 관람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 궁궐 관광상품의 마케팅 개선 측면에서 외국인 관광객시장을 보다 세분화하고 경제적, 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높은 목표시장을 설정하여 이들 수요자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2. 추진전략 수립

### 1) 이미지 강화

우리나라 궁궐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며 외국의 유사자원과 비교할 때 특별한 매력이나 차별성이 없는 평범한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조선 궁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귀하고 우아하며 품격 높은 관광자원으로서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 홍보 효율화

궁궐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안내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안내 브로셔, 관광지도, 홍보서적, 유명 사진집, 비디오 영상물, 기념품 등 다양한 홍보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재청,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유네스코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대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 3) 시장 차별화

궁궐 관광상품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편적인 인식과 인지도 개선을 위해 전체 관광객 시장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는 외국인 관광객 시장을 세분화하고 특정 목표시장을 설정하여 이들 수요자 욕구에 맞는 관광상품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 4) 가격 차별화

현행 궁궐 관람요금은 국내 다른 문화활동이나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저렴한 편이며, 궁궐 관련 관광상품은 중저가(中低價) 패키지 상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선 궁중 문화의 가치와 품위에 걸맞은 고급화된 관광상품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 5) 각 궁별 차별화

현존하는 5대 궁궐의 역사문화, 자연자원, 보존가치, 관광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궁별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궁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궁중의례 재현행사도 각 궁의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고 상설화된 이벤트로 발전시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관광상품 개발방안

### 1. 기본 방향

#### 1) 경복궁

경복궁은 조선 제일의 궁궐로서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전체 규모와 배치, 구성 및 짜임새를 보여주는 대표 문화유산이다. 경복궁 근정전과 경회루, 아미산, 향원정은 조선 궁궐 건축과 조경을 대표하는 자원이다. 현재 경복궁 내 조성 중인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궁궐의 배치와 전체 규모를 알려주는 모형을 제작 전시할 필요가 있다. 세종대왕 즉위식과 같은 격조 높은 국가오례 재현을 전문화하고 왕과 왕실, 궁녀, 관원, 노복, 내시, 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궁중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2) 창덕궁

창덕궁은 조선의 궁궐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임금이 거처했던 궁궐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룬 한국 궁궐 건축의 비정형적 조형미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다양한 정자, 연못, 수목, 괴석이 어우러져 가장 아름다운 창덕궁 후원은 소규모 관광객을 위한 고품격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조선 양반문화를 간직한 연경당, 순종황제의 마지막 생활공간이었던 대조전과 회정당 일대는 과거 궁중 생활상을 재현 전시하고 건물 내부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 3) 창경궁

창경궁은 창덕궁과 더불어 동궐(東闕)이라는 한 궁역을 형성하였으며 궁중여성의 생활문화와 주거공간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다. 창경궁은 <동궐도>에 근거하여 장독대 일부와 소주방, 수라간을 복원하고 궁중 음식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며, 조선 궁중연회 재현행사와 궁중음악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4) 덕수궁

덕수궁은 지난 1904년 대화재와 조선 국권의 상실로 인해 궁궐 영역의 대부분이 잘려 나가고 변형과 왜곡이 심하게 일어났다. 현재 덕수궁 북쪽과 정동 일대, 원

구단 등 주변자원을 연계하여 대한제국의 역사와 궁궐을 이해하는 답사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 덕수궁 석조전은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연구하고 관련 유물과 자료를 전시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5) 경희궁

경희궁은 현존하는 5대 궁궐 가운데 가장 심하게 훼손된 궁궐로서 문화재의 보존가치나 관광 매력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다만 경희궁 구역 내에 최근 설립된 서울역사박물관 시설을 활용하여 수도 서울의 역사와 함께 조선 궁궐 문화유산을 소개할 수 있으며 개방적인 형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표4-1> 각 궁별 관광상품 개발방향

| 전략       | 구분  | 관광상품 개발방향   |
|----------|-----|---|
| 핵심<br>거점 | 경복궁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궁궐 건축의 배치, 규모, 구성적 특성 전달</li><li>· 격조 높은 국가오례 재현행사의 전문화</li><li>· 궁중 문화, 역사, 과학, 음식 체험상품 개발</li><li>·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을 방문객센터로 활용</li><li>· 서울특별시 및 청와대 연계 관광코스 개발</li></ul> |
|          | 창덕궁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존 우선의 제한적인 특별관람코스 개발</li><li>· 창덕궁 후원의 풍류문화 체험관광상품 개발</li><li>· 궁중 생활상 재현전시 및 고건축 내부 관람</li><li>·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광홍보활동 강화</li></ul>                                    |
| 보완<br>연계 | 창경궁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궁중 주거문화 및 음식문화 체험상품 개발</li><li>· 궁중연회 재현, 궁중아악·무용공연 전문화</li></ul>   |
|          | 덕수궁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야간 궁궐 활용 및 대한제국 황실문화 체험행사</li><li>· 정동 일대 자원 및 원구단 연계관광코스 개발</li></ul>  |
|          | 경희궁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방적 체험공간 활용 및 서울역사박물관 연계</li></ul>  |

## 2. 궁중문화 체험상품 개발방안

### 가. 경복궁

#### 1) 경회루 궁중연회 재현: 조선시대 연회 문화 체험

‘경회(慶會)’라는 명칭은 임금과 신하의 좋은 만남을 뜻하는 말이듯이 이 곳에서는 국가의 경사를 군신(君臣)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었다. 중국, 일본 등 외국사신을 비롯하여 왕과 고위관료, 왕족 등을 위한 수많은 연회가 이루어졌다. 경회루 연회에 사용된 의식과 음악, 음식 등은 조선시대 연회 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경복궁 경회루에서 베풀어졌던 조선 궁중 연회의 일부를 재현하거나 궁중 아악, 궁중 무용 정재(呈才) 공연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이를 관람하는 관광객에게는 별도의 추가 요금을 부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회루는 24개의 돌기둥이 2점으로 되어 있는데 음양오행 원리를 따라 안쪽 기둥은 원형, 바깥기둥은 방형이다. 정면 7칸 측면 5칸 규모의 2층 팔작지붕 건물로 물 속에 드리워진 장대한 모습이 일품이다. 경회루가 있는 섬에 들어가는 길은 3개의 아름다운 석교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섬 서쪽에는 배를 대는 선착장이 있어 뱃놀이를 할 수 있었다. 경회루 방지(方池)에 조선시대 배를 복원하여 설치하고 선상에서 경회루 전경과 궁중 연회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경복궁 경회루 전경



경회루 수제천 공연

## 2) 명성왕후 · 청와대 연계관광: 조선 궁중 역사 체험

경복궁 향원정 북쪽에 위치했던 건천궁 영역은 명성왕후가 시해당한 을미사변(乙未事變)의 현장이기도 하다. 1895년(고종 32년) 8월 20일 새벽, 일본 공사 미우라가 이끄는 일본 공사관 직원, 일본군, 일본 낭인, 조선 신식군대인 훈련대 등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건천궁의 한 건물인 곤녕합에서 명성왕후를 시해하였다. 현재 그 빈터에는 두 개의 비석과 기록화가 남아있다. 뮤지컬 <명성왕후>는 조선후기 궁중 역사와 전통 복식, 음악, 무용 등을 전달하는 초대형 창작 뮤지컬로서 경복궁 홍보 및 관광을 위해 연계될 수 있는 공연문화상품이다.

고종은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神武門) 밖으로 크게 후원을 설치하였는데 용문당(隆文堂), 용무당(隆武堂), 옥련정(玉蓮亭), 경농재(慶農齋) 등 많은 건물들과 왕이 직접 농사를 지어보던 내농포(內農圃)도 있었다. 경무대(景武臺)는 왕이 친히 군사훈련을 점검하기도 하고 연회를 베풀기도 한 곳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경복궁 광화문 안에 지으면서 총독 관저를 신무문밖 경복궁 후원에 설치하였다. 총독 관저는 이승만 대통령 때 대통령 관저로 쓰이면서 이름이 경무대로 바뀌었다가 4·19 이후 청와대로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경복궁 관람 이후 청와대 연계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복궁 옛 후원과 칠궁(七宮)<sup>1)</sup>을 감상할 수 있다.

## 3) 수라간 소주방 복원 활용: 궁중 음식과 궁녀 생활상 체험

조선시대 왕의 수라상은 당대 최고의 재료로 맛과 모양을 낸 음식이 최고의 식기류에 담겨 올라갔으며 왕의 식사에만 따르는 특별한 절차가 있었다. 조선시대 왕의 식사 문화는 우리 민족이 성취한 최고의 음식문화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신명호, 2002). 왕의 식사는 잔치 때 대전어상(大殿御床)과 일상생활에서의 수라상으로 구별되었다. 대전어상은 각종 궁중 연회 때 왕이 받는 음식상으로서 왕의 식사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특별했다. 왕의 일상적인 식사는 아침(조수라), 점심(주수라), 저녁(석수라)의 세끼 수라 외에 참참이 드는 간식으로 구분되었다. 수라상은 12첩 반상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조선시대 12첩 반상은 오직 왕과 왕비만 사용할 수 있었다.

1) 왕비가 아니었던 왕의 생모를 모시는 사당으로서 토지를 관리하며 제사를 모시는 곳도 궁이라고 칭하였는데 육상궁(毓祥宮), 저경궁(儲慶宮), 대빈궁(大嬪宮), 연호궁(延祐宮), 선희궁(宣禧宮), 경우궁(景祐宮), 덕안궁(德安宮)을 합친 칠궁(七宮)이 청와대 서편에 남아있음

수라상 음식은 왕의 전속 요리사들이 만들었는데 이들은 궁중 음식을 담당하는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된 천민 기능직이라 할 수 있다. 각 전각에 딸린 음식 만드는 곳을 수라간이라 하였는데, 수라간에는 생과방(生果房)과 소주방(燒廚房)이 있었다. 찬요리를 담당한 생과방에서는 조식 식사 외에 음료와 다과류를 만들었으며, 더운 요리를 담당한 소주방은 수라를 장만하던 내소주방과 잔치 때 다과와 떡을 만들던 외소주방으로 나뉘었다. 경북궁 복원정비 사업(1990년~2009년)의 일환으로 소주방지 발굴 조사와 복원 설계가 진행되었으며 소주방지 복원작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복원된 소주방지는 조선시대 궁중 음식과 궁녀의 생활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 있다. 궁중음식 기능보유자를 초빙하여 왕의 수라상 차림, 식사 예절, 식기류, 수라간 등에 관한 상세한 해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궁중 음식문화 관련 유명 TV 드라마, 영상홍보물 등을 상영하여 관광객의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다.

#### 4) 세종대왕 브랜드와 집현전 형상화: 조선 궁중 과학문화

경회루 남쪽의 수정전(修政殿) 건물 터에는 과거 세종 연간에 집현전이 설치되어 있었다. 집현전은 학문을 연구하며 왕에게 주요 정책을 자문하고 건의하던 기관으로서 훈민정음 창제 등 세종대 문치의 본산이라 할 수 있다(홍순민, 1999). 과거의 집현전은 왕의 영역과 신하들의 영역이 만나는 접점에 자리 잡고 있다. 고궁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세종대왕 즉위의식 재현행사가 경북궁 근정전에서 거행된 바 있으나, 세종대왕의 업적과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를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수정전-옛 집현전 일곽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수원시가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정조대왕을 관광브랜드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조선의 대표 궁궐 경북궁을 상징하는 국왕으로서 세종대왕을 브랜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과학기술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발달하였으며 이는 백성들의 생활을 이롭게 하려는 유교의 농본주의 이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천문학의 발달은 농업의 생산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경북궁에 천문을 관측하기 위한 간의대를 설치하고 혼천의 등 관측기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해시계·물시계·별시계 등을 제작하였다. 특히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세종대왕은 장영실 등에게 명하여 1434년(세종16)에 자동적으로 종과 북과 징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인 자격루를 만들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정밀하고 과학적인 시계

였던 자격루의 당시 모습과 작동 원리를 영상그래픽으로 복원하여 상영한다면 조선 궁중 과학문화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측우기, 앙부일구 (해시계), 혼천의 등 세종대 대표적인 과학기기들을 수정전-옛 집현전 일곽에 복원 설치하고 그 원리와 사용방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경북궁 조선왕궁역사박물관: 궁궐 방문객센터 역할

정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370억원을 투입해 덕수궁의 궁중유물전시관을 경북궁 내 국립중앙박물관자리로 이전하여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궁중유물전시관을 비롯하여 경북궁, 창경궁, 창덕궁, 종묘 등 4개 궁과 동구릉, 의릉 등 13개 능원에 나누어 소장되어 있던 조선왕조 궁중유물의 체계적인 전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경북궁 내 새로 조성되는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은 궁궐 방문객을 위한 종합적인 관광홍보센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은 궁궐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 궁궐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의를 알리는 한편 적절한 관람지침과 복장에 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궐도형>, <북궐후원도형>, <동궐도형>, <동궐도>, <덕수궁평면도>와 같이 궁궐 관련 도형, 도면, 그림, 사진 자료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궁궐 모형을 제작 전시할 수 있다. 경북궁 조선왕궁역사박물관 내에는 시청각 자료실, 소규모 도서관, 전문가 강연 세미나실, 홍보 상영관 등 핵심시설들을 도입하고 조선 궁궐의 역사, 문화, 건축, 생활상을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전시·홍보하는 관광명소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4-2> 전시관 시설규모 비교

| 구 분   | 궁중유물전시관  | 조선왕궁역사박물관  |
|-------|--|--|
| 위 치   | 서울 중구 정동 5-1번지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번지  |
| 시설 규모 | 부 지: 1,634평<br>연건평: 1,247평<br>전시실: 752평(11개실)<br>수장고: 495평 | 부 지: 30,435평<br>연건평: 5,550평<br>전시실: 2,113평(24개실)<br>수장고: 2,348평(지하수장고) |



## 나. 창덕궁

### 1) 창덕궁 후원 옥류천 특별관람: 조선 궁중 풍류문화 체험

창덕궁 후원의 부용정은 부용지 연못을 끼고 주합루를 바라보며 북향을 한 정자로서 정자 안에서 문짝을 열면 온 천지가 한꺼번에 정자 안으로 달려드는 듯하다. 부용정에 앉아서 문 밖으로 주합루와 부용지 일대의 아름다운 후원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창덕궁 후원의 존덕정에서 편우사로 가려면 박석을 딛고 가야하는데, 그 돌들이 양반들의 팔자(八字) 걸음에 맞도록 깔려있다. 이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선시대 양반 문화를 소개하고 지체 높은 양반들의 팔자(八字) 걸음을 직접 따라해 보는 체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농산정은 태극정의 동쪽에 위치하는 옥류천 일대 골짜기의 마지막 정자로서 대청 2칸, 온돌방 2칸, 부엌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곳은 임금이 옥류천 영역을 방문하였을 때 다과상을 마련하던 곳으로 추측된다. 농산정의 부엌 공간을 활용하여 궁중 전통 차와 다과 준비 과정을 재현하고 관광객이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소요정은 취한정을 지나 서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물로서 이 정자에서는 옥류천과 계류의 물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농산정에서 마련한 차와 다과를 소요정에 앉아 시음하면서 창덕궁 후원 옥류천 일대의 풍류 문화를 이해하고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용정 일대 전경



존덕정과 편우사 사이의 박석



옥류천 농산정



옥류천 소요정

## 2) 고건축 내부 입장 관람: 왕실 생활상 · 궁중화장실 체험

창덕궁 회정당은 원래 내전에 속한 건물이었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 편전으로 사용되었다. 중앙의 정면 3칸, 측면 3칸을 통간으로 하여 응접실로 사용하였고 응접실의 서편은 같은 크기의 회의실로 사용하였다. 임진왜란 등 몇 번의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지난 1920년 경복궁 강녕전을 이전하여 다시 세웠다. 현재 응접실 좌우에는 김규진(金圭鎭)의 <금강산도> · <해금강도>가 있다. 창덕궁 대조전은 조선조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최고의 건물로서 서양식 가구를 갖춘 한말 궁궐의 내실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1917년에 불에 탄 것을 경복궁의 교태전을 헐어 가져와 1920년 완공하였다. 창덕궁 회정당과 대조전 전각의 실내를 당시 가구와 생활소품으로 재현 전시하고 건물 내부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되, 덧신을 신고 들어가게 함으로써 관광객 스스로 경외감을 갖도록 하며 별도의 추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창덕궁 회정당 내부



창덕궁 대조전 내부

창덕궁 경훈각은 대조전 서북쪽에 연결된 생활공간으로서 현재는 단층 건물이지만 원래는 2층 건물이었다. 경훈각의 서쪽과 북쪽에는 재건 이후 원래 궁중 화장실과는 약간 다른 서양식으로 개조된 궁중화장실이 있었다. 왕의 이동식 변기를 '매우틀'이라고 하였는데, 세 쪽은 터져 있는 'ㄷ'자 모양의 나무로 된 의자식 좌변기였다. 앉는 부분은 빨간 우단으로 덮었고, 그 틀 아래에 구리로 된 그릇을 두어 이곳에 대소변을 받게 되어 있었다. 매우틀을 담당하는 복이내인(僕伊內人)이 미리 매우틀 속에 '매추'라 하여 여물을 잘게 썬 것을 뿌려서 가져오면 그 위에 용변을 보고, 왕의 측근 내인이 그 위에 다시 매추를 뿌리고 덮어서 가져갔다. 필요한 경우에는 내의원으로 가져가 검사함으로써 왕의 건강을 살피는 자료로 삼았다. 창덕궁 경훈각은 조선시대 궁중 화장실을 재현 전시하여 왕실의 생활상을 체험해 볼 수 있다.

### 3) 낙선재 일곽 후원 특별관람: 궁중 생활상 및 후원 화계

창덕궁 낙선재 일곽은 조선후기를 거치면서 왕들이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특히 왕실의 궁중 여성들이 주로 거처한 곳으로서 그에 맞는 실내 가구와 집기를 재현하여 궁중 생활상을 이해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낙선재는 원래 창경궁에 속했던 연침의 하나였으며, 헌종이 즉위한지 13년 (1847)되던 해에 낙성한 건물이다. 낙선재는 고종이 편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1917년 대조전이 불탔을 때는 순종이 이곳에 기거하였고, 순종비인 순정황후와 조선시대 마지막 공주였던 덕혜옹주도 이곳에서 생활하였다. 최근에는 영왕비 이방자 여사가 1989년까지 이곳에서 생활하여 낙선재는 서울 5대궁의 전각들 중 가장 최근까지 왕실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다.

낙선재 일곽 후원은 한국 궁궐의 대표적인 후원 화계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서 낙선재 후원과 상량정 일원은 사전 예약에 의해 특별관람 코스로 제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운정은 수강재 뒤뜰 화계 위에 자리 잡은 정자로서 <동궐도>에도 표현되어 있으며, 동쪽의 담장 너머로 창경궁의 전체 규모와 배치를 조망할 수 있는 적지이다. 한정당은 석복헌 뒤 화계 위에 있는 팔작지붕 건물로서 앞뜰에 놓여 있는 여러 개의 괴석과 그 받침대 문양이 감상 가치가 있다. 상량정은 낙선재 화계 뒤쪽의 후원인 높직한 터 위에 자리한 육각형의 누각 건물로서 봉황과 용과 박쥐문양으로 화려한 단청을 배필었다.



낙선재 일곽



낙선재 후원 화계



석복헌 후원의 한정당



낙선재 후원의 상량정

#### 4) 창덕궁 연경당과 북촌 한옥마을: 조선 사대부 양반문화 체험

창덕궁의 연경당은 순조 28년(1828)에 당시 왕세자였던 효명세자의 청으로 사대부집을 모방하여 궁궐 안에 지은 이른바 99칸 집이었으나 지금의 연경당은 그 후 다시 지은 것이다. 연경당은 창덕궁 안에 지은 유일한 민가형식의 건물로서 사랑채의 당호가 바로 연경당이다. 사랑채엔 안채가 이어져 있고 사방에 행각들이 설비되어 있다. 연경당 대청 앞에는 초헌이나 말을 타고 내릴 때 딛는 노뚝돌이 놓여 있고 동쪽으로는 서재 겸 응접실로 쓰였다는 선향재가 있다. 안채 뒷담 밖에는 음식을 준비하던 반빗간이 있고 안채의 서쪽과 남쪽으로는 안주인을 시중드는 여자들의 활동 공간인 행랑방들이 둘러싸고 있다. 연경당 일곽은 전체적으로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 건물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여 사대부가 살림집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창덕궁 연경당은 궁궐 내에서 사대부 양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당시 생활 가구와 서적, 필기구, <평생도> 등을 재현 전시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창덕궁 연경당 전경



연경당 내부 모습

창덕궁 연경당과 연계 가능한 관광명소로는 서울의 북촌(北村) 전통한옥마을이 있다. 운중가와 청계천을 중심으로 북쪽 구역은 북으로 백악과 응봉 자락을 등지고 남으로 청계천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를 갖춘 명당자리였다(홍순민, 1999). 이곳에는 부와 귀를 갖춘 사람들, 왕과 고관대작들, 양반들이 모여 살았으며 북촌(北村)이라고 불렸다.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북촌을 마주보는 구역, 즉 청계천의 남쪽인 목면산(지금의 남산) 북쪽 기슭은 남촌(南村)이라 불렸다. 남촌은 경관 면에서는 북촌에 뒤지지 않았으나 좌향(坐向)은 북향으로 그리 좋지 못했다. 이러한 남촌에는 부와 귀는 갖추지 못했으나 기개만은 곳곳한 양반 선비들이 주로 살았다.

북촌지역에는 모두 900여 채가 넘는 전통한옥이 밀집해 있으며 마치 물이 흘러 내려가듯 가지에 가지를 치는 모양의 골목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북촌지역은 전통한옥 이외에도 수많은 사적과 문화재, 민속자료가 분포하고 있어 도심 속의 거리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한옥등록제를 실시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북촌의 전통한옥들을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옥들을 매입하여 열린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개설된 북촌문화센터는 북촌의 한옥생활과 전통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전통공예, 음식, 국악, 다도, 한복, 전통혼례, 천연염색, 자수, 서예 등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가 가능한 강좌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촌지역의 일부 전통한옥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한옥에서의 숙박체험과 한국음식 만들기, 전통문화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다. 창경궁

### 1) 궁중 진찬 및 과거시험 재현

창경궁은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비해 관광자원이나 매력도가 부족하나 창덕궁의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 창덕궁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적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 창경궁은 궁중여성의 생활문화와 주거공간이 특히 발달했던 궁궐로서 이곳에서 거행되었던 진작 행사와 진찬 행사에 관한 의궤와 근거자료가 남아있다. 1827년(순조 27) 9월 효명세자는 아들을 얻은 기쁨에 부모에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순조와 순원 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진작(進爵)행사를 창경궁 자경전에서 거행하였고 이에 관한 근거 자료로서 『자경전진작정례의궤』가 전해온다. 또한 『순조기축진찬의궤』는 1829년 순조가 40세 되는 동시에 재위 3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베푼 잔치 행사를 정리한 자료이다. 순조기축진찬의식은 대전외진찬(大殿外進饌), 대전내진찬(大殿內進饌), 대전야진찬(大殿夜進饌), 왕세자회작(王世子會酌)으로 구성되었다. 외진찬은 군신이 주축이 되는 연향으로 대비, 왕비 등 여성이 참여하는 일이 없었다. 내진찬은 대비, 왕비, 세자빈, 공주 등 궁중 여성이 참여하는 잔치로서 왕을 비롯한 종친, 의빈, 척신 등 왕실의 친인척인 남성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대전외진찬은 창경궁의 명정전에서 거행되었으며 대전내진찬, 대전야진찬, 왕세자회작은 왕비의 거처인 자경전에서 거행되었다. 현재 창경궁 명정전 일대는 궁중 진찬 행사의 음악과 무용, 복식, 음식, 의장품 등을 재현하는 상설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창경궁 북쪽에는 현재 춘당지와 소춘당지가 남아있다. <동궐도>에 의하면 춘당지 남쪽으로는 “풍년이 든 논을 바라보는 곳”이라는 의미의 관풍각이 있고, 동남쪽으로는 권농장이던 내농포가 있었다. 내농포는 임금이 직접 벼를 심고 추수를 하던 곳이다. 조선은 농업과 길쌈이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농업사회로서 이를 진흥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국왕은 늦봄에 농민들과 함께 직접 소를 몰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의식인 친경례(親耕禮)를 행하였으며 가을에는 직접 낫을 들고 수확을 하는 친예례(親刈禮)를 행하였다. 과거 창경궁 춘당지 동남쪽의 내농포 일부를 복원하여 궁중 논 모내기와 벼 수확 체험공간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춘당지는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곳으로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과거시험 재현행사를 추진해 볼 수 있다.



명정전 궁중 진찬 재현



창경궁 춘당지 전경



&lt;동국도&gt;의 춘당지와 내농포

## 2) 궁중 장 담그기 · 음식 만들기

창경궁은 경복궁과 창덕궁에 비해 개방적이고 다양한 체험행사 개최가 가능한 궁궐이다. 창경궁은 궁중 여성을 위한 생활공간과 주거문화가 발달했던 궁궐로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국도>를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장독대가 있었다. 창경궁 통명전 서쪽에 있는 지당 서쪽과 남쪽에는 각각 담을 두르고 염고(鹽庫)라고 기록한 장독대가 있었는데, 이 일대를 복원하여 궁중 주거문화를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동국도>에 근거하여 창경궁 개광문 옆 소주방과 함인정 동쪽 행각에 수라간을 복원하고 궁중 음식과 김치, 전통 차, 다과 등을 직접 만들거나 맛볼 수 있는 체험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창경궁 통명전 서남쪽 빈 터



<동궐도>의 통명전 서남쪽 장독대



빈전에서 본 소주방 자리



<동궐도>의 소주방과 수라간

## 라. 덕수궁

### 1) 해설이 있는 궁중 음악 축제

덕수궁의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은 서울 도심에서 관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 관광이벤트로 상설화되었으나 최근 덕수궁 대한문 보수공사로 인해 잠시 중단될 예정이다. 기존에 덕수궁은 각종 음악회, 패션쇼, 미술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전시 공연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덕수궁의 가치와 품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궁중 문화행사 발굴이 요구된다. 서울의 5대궁 가운데 덕수궁은 시청 앞 도심에 위치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고 야간 개방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야간(夜間)을 활용한 조선 궁중 음악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을 돕기 위해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고 궁궐 내 주요 전각에 경관 조명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 2) 어진(御眞) 제작 재현 및 궁중복식·장신구 체험

조선 왕실에서는 임금의 초상을 그리거나 궁궐의 안팎을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왕실의 기념행사를 기록하기 위해 도화서(圖畫署)에 화원(畫員)을 소속시켜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어진(御眞)은 임금의 초상화로서 당대 최고의 화가가 그렸으며, 화폭에 인물의 외형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인품이나 정신 및 학덕까지 표출하는 전신사조(傳神寫照)가 특징이었다. 고종은 황제에 즉위한 후 덕수궁 정관헌에 나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어진을 그리기도 하였는데 어진 제작은 대한제국 당시 매우 중요한 정치적·문화적 상징성을 갖는 행사였다. 대한제국 당시 어진 제작 행사를 재현하고 궁중 복식과 장신구를 직접 착용해보는 체험기회를 마련해 볼 수 있다. 또한 덕수궁 정관헌은 다과를 들거나 연회를 위한 휴식처로 마련된 건물로서 대한제국 황실의 다례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종의 어진



덕수궁 정관헌

## 3) 정동 일대와 원구단 연계코스 개발

덕수궁 중명전은 정동극장 원편으로 미국 대사관저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중명전은 1900년에 러시아 건축가가 지은 덕수궁 내 최초의 서양식 2층 벽돌 건물이다. 고종황제의 알현소나 연회장, 외국사절의 접견소로 사용되었으며, 1905년 일제의 협박에 의해 '을사조약'이 체결된 역사적인 장소이다. 정동 일대는 1880년대 조선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의 공사관이 다수 들어섰다. 중명전 일대 서

북쪽 등성이에 자리 잡고 있던 러시아 공사관은 부지도 상당히 넓고 건물의 규모가 매우 컸으나 6·25 전쟁으로 대부분 없어지고 현재 일부만 남아있다. 또한 이화여고 동문(東門) 안에는 과거 손탁(Antoinette Sontag, 孫澤) 호텔이 있었다. 프랑스 혈통의 독일인이었던 손탁은 명성왕후와 연결되어 궁궐에서 서양인을 접대하고 서양문화를 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때문에 손탁은 정동 29번지에 있는 184평짜리 집 한 채를 하사받았고 그 곳에 서울 최초의 2층 서양식 호텔을 지었다. 이곳은 서양인이나 이들과 친한 내국인의 친목단체인 정동구락부의 근거지로 사용되었다(홍순민, 1999). 덕수궁 북쪽과 서쪽의 정동 일대 답사와 함께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원구단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고종은 1897년 2월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8월 14일(음) 연호를 건양(建陽)에서 광무(光武)로 고치고 천지와 종묘사직에 고하기 위하여 원구단(圓丘壇)을 짓게 하였다. 9월 17일(음) 고종은 원구단에서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드리고 황제에 즉위하였다. 1913년 일제는 원구단을 헐고 그 자리에 철도호텔을 세웠으며, 그 뒤 조선호텔이 되어 현재까지 남아있다.

## 마. 경희궁

경희궁은 현존하는 5대 궁궐 가운데 가장 심하게 훼손된 궁궐로서 문화재의 보존가치나 관광 매력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경희궁 구역 내에 최근 설립된 서울역사박물관 시설을 활용하여 수도 서울의 6백년 역사와 함께 조선 궁궐 문화유산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경희궁은 기존의 궁중의례 재현행사와 같은 대규모 행사보다는 소규모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희궁의 승정전은 최근에 복원된 건물로서 재현행사나 체험이벤트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수 있다. 궁중 다도, 전통예절, 투호와 격구 등 궁중 놀이, 나례(儼禮)<sup>2)</sup>, 처용놀이, 잡희<sup>3)</sup>, 쥐부리글러<sup>4)</sup> 등 궁중 풍습, 왕의 가마타기, 궁중 복식 입어보기, 전통 혼례 등 일반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 있다.

2) 궁중과 한양 각처에 귀신을 잡아먹는 사자들을 보내 축귀(逐鬼)하는 가면놀이를 말함

3) 일종의 마당극으로 사설과 노래, 연기를 하였으며 편전의 월대 위에서 공연하였음

4) 새로 입궁한 어린 궁녀들에게 말조심을 일깨우기 위해 치러졌던 궁중 행사를 뜻함

&lt;표4-3&gt; 5대 궁궐 전각의 활용방안

| 구 분 | 전 각 | 특 성  | 활용 방안   |
|-----|-----|--|---|
| 경복궁 | 광화문 | 경복궁의 정문으로서 대원군에 의해 중건된 후 일제 때 옮겨져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후 1968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복원됨                       | 사신영접 행사, 도성민 소집 군례악(취타) 상설 공연                 |
|     | 근정전 | 조선 최고의 궁궐 전각이며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서 왕이 신하들로부터 조하를 받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등 국가 의식을 거행함                     | 격조높은 국가오례 재현행사<br>근정전 기단 주위 돌집승을 소재로 홍보기념품 개발 |
|     | 경회루 | 왕이 외국 사신이나 신하들을 모아 연회를 베풀던 곳으로 왕이 직접 참석하는 과거나 군사훈련, 기우제 등이 이루어졌음                           | 조선 궁중연회 재현행사<br>궁중아악·정재 상설공연<br>국제회의 관련행사 유치  |
|     | 수정전 | 수정전은 왕의 영역과 신하의 영역이 만나는 접점인 경회루 남쪽에 위치하며 세종 연간에 집현전이 설치되어 있었음                              | 훈민정음 창제 기념행사<br>관료들의 궁중생활상 재현<br>궁중 과학문화 체험공간 |
|     | 소주방 | 궁중 음식을 만들던 곳으로 수라를 장만하던 내소주방과 잔치음식을 만들던 외소주방으로 구분됨   | 궁중음식과 궁녀의 생활상<br>체험공간으로 활용                    |
|     | 건천궁 | 조선후기 고종의 정치적 자립의지를 상징하며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을미사변의 역사적 현장  | 조선후기 궁중역사 소개<br><명성황후> 영상물 상영                 |
| 창덕궁 | 인정전 | 창덕궁의 정전으로 국왕이 외국의 사신을 접견하고 신하들로부터 조하를 받는 등 공식적인 국가행사를 치르던 곳임                               | 궁중 생활상 재현전시<br>고건축 내부 입장 관람                   |
|     | 희정당 | 창덕궁의 내전에 속한 건물이었으나 조선 후기 편전으로 사용됨. 경복궁 강녕전을 이건하여 지은 것으로 서양식을 가미한 접객실과 회의실을 갖추고 있음          | 궁중 생활상 재현전시<br>고건축 내부 입장 관람                   |
|     | 대조전 | 창덕궁 내전 중 가장 으뜸가는 건물로서 1920년 경복궁 교태전을 옮겨지었음.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최고의 건물로서 서양식 가구를 갖춘 궁궐의 내실 모습을 간직함 | 궁중 생활상 재현전시<br>고건축 내부 입장 관람                   |
|     | 경훈각 | 창덕궁 대조전 뒤쪽에 있는 건물로 왕실에서 사용한 이동식 번기의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아궁이와 굴뚝, 화계(花階) 등이 조성되어 있음                 | 궁중 생활상 재현전시<br>조선 궁중화장실 체험                    |
|     | 규장각 | 왕실의 어제나 어필, 어진 등을 보관하는 작은 기구에 불과했으나 정조 때 왕실도서관이자 개혁정책연구소로서 격상되었음                           | <규장각도> 모형 전시<br>관련 고서적 보관·열람                  |

| 구 분 | 전 각 | 특 성   | 활용 방안  |
|-----|-----|---|--|
| 창덕궁 | 낙선재 | 궁중 여성들이 주로 거처한 곳이며 가장 최근까지 왕실 사람들이 살았던 전각임. 낙선재 일곽 후원은 한국 궁궐의 대표적인 후원 화계를 보여줌 | 실내가구와 집기 재현전시<br>낙선재 후원과 상량정 일곽<br>특별관람코스 개발 |
|     | 연경당 | 순조가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고 사대부가 형식의 집을 짓게 하였는데 건축물과 공간의 짜임새가 매우 뛰어나                 | 조선시대 양반문화 체험<br>생활가구와 소품 재현전시                |
|     | 청의정 | 옥류천 안쪽에 초가지붕을 한 정자로서 정자 앞 논에서 왕이 직접 농사를 지어 보였음                                | 궁중 논 모내기(친경례)<br>벼 수확 체험(친예례)                |
|     | 농산정 | 태극정 동쪽의 정자로 임금이 옥류천 영역을 방문할 때 다과상을 마련하던 곳으로 추측됨                               | 부엌 공간을 활용하여<br>궁중 전통 차와 다과 체험                |
| 창경궁 | 명정전 | 창경궁의 법전으로 왕의 즉위식, 신하의 하례, 궁중 연회 등이 거행되었으며 동향으로 배치됨                            | 궁중 진찬 재현 행사<br>궁중 아악·정재 공연                   |
|     | 경춘전 | 연산군 때 소혜왕후, 숙종 때 인현왕후 민씨, 순조 연간에 혜경궁 홍씨 승하 장소                                 | 궁중여성 생활상 재현<br><인현왕후전> <한중록><br>궁중문학·역사 소개   |
|     | 자경전 | 정조가 어머니 헌경왕후(혜경궁 홍씨)를 위해 건립한 건물로 대비전으로 사용되었음                                  | 정조의 효(孝)사상<br>교육 프로그램 개발                     |
|     | 관덕정 | 인조 때 창건된 정자로 춘당지 동북쪽에 위치하며 활을 쏘던 정자 건물임                                       | 왕의 활쏘기 행사 재현                                 |
|     | 영춘헌 | 정조가 항상 기거하던 곳이며 승하한 장소임. 서행각인 집복헌은 내명부의 처소로 추정됨                               | 신규 복원된 전각 활용<br>궁중 다례·예절 체험                  |
| 덕수궁 | 중화전 | 대한제국 덕수궁의 법전으로 창건 당시 2층이었으나 이후 단층으로 재건되었으며 내부에 황금색 오조룡을 배설하였음                 | 해설이 있는 야간(夜間)<br>궁중 음악 공연 개최                 |
|     | 정관헌 | 다과나 연회를 위한 휴식처로 마련되었으며 어진을 제작 보관하던 장소로도 사용되었음                                 | 어진 제작 재현행사<br>황실 궁중다례 체험                     |
|     | 석조전 | 고종황제 집무실과 접견실로 지은 서양식 건물로 현재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됨                                    | 대한제국 황실문화 연구<br>관련 유물, 자료 전시                 |
| 경희궁 | 송정전 | 경희궁의 법전으로서 국왕과 신료들이 조회를 하던 곳이며 최근 새로 복원된 건물임                                  | 궁중다례, 전통혼례 등                                 |

3. 서울시 연계관광코스 개발방안

가. 서울시티투어버스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지난 1949년 민간여행사가 최초로 운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고궁코스(2001.4)와 도심순환코스(2000.10)로 구분하여 운행하고 있다. 고궁코스는 서울 도심의 총12개소 정류장을 순환 운행하며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출발하여 덕수궁→인사동→창덕궁→창경궁→청와대→경복궁으로 연결되는 코스이다. 서울시티투어버스 고궁코스는 경희궁을 제외한 서울의 4대궁을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궁궐 문화유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묘, 사직, 청와대(칠궁), 원구단, 내사산, 도성 등 서울시 주변 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4-4> 서울시티투어버스 운영현황

|                         |  |                              |
|-------------------------|--|------------------------------|
| 고궁코스<br>(총12곳 정류장 순환)   | 광화문출발→덕수궁→프레스센터→교보문고→인사동→창덕궁→대학로→창경궁→창덕궁→인사동→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경복궁→세종문화회관→광화문도착  |                              |
| 도심순환코스<br>(총28곳 정류장 순환) | 광화문출발→덕수궁→남대문시장→서울역→SUO→용산역→전쟁기념관→미군용산기지→이태원→크라운호텔→명동→남산골한옥마을→소피텔앰버서더호텔→국립극장→남산서울타워→하얏트호텔→타워호텔→신라호텔→동대문시장→대학로→창경궁→창덕궁→인사동→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경복궁→경찰박물관→세종문화회관→광화문 |                              |
| 구분                      | 고궁코스   | 도심순환코스                       |
| 운행시간                    | 오전 9시-오후 5시<br>(막차 오후 4시 출발)   | 오전 9시-오후 9시<br>(막차 오후 7시 출발) |
| 운행간격                    | 동절기 60분 간격 출발(11.1-3.31)<br>하절기 30분 간격 출발(4.1-10.31)   | 30분 간격 출발                    |
| 순환시간                    | 약1시간   | 약2시간                         |
| 버스요금                    | 1회권: 성인 5000원/고교생 이하 3000원   |                              |
| 전일권(고궁+도심코스)            | 성인 10000원/고교생 이하 8000원   |                              |

## 나. 서울을 보여주기 위한 궁궐: 역사문화 투어코스

서울은 풍수지리상 산과 물이 어우러진 명당에 위치한 수도이며 서울 도심에 자리 잡은 궁궐은 서울의 6백년 역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다. 서울의 내사산(內四山)인 백악, 타락, 인왕, 목멱산 그리고 그 네 산의 능선을 따라 쌓았던 도성(都城), 서울의 내수인 청계천과 외수인 한강을 돌아보면 조선 한양의 도시계획과 궁궐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의 5대 궁궐 뿐만 아니라 종묘, 사직단, 북촌, 칠궁, 원구단 등 주변 자원들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종묘(宗廟)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셔 제사를 봉행하던 곳으로서 건축 공간의 구성과 장식, 색채의 간결함과 단순함은 고도로 절제되어 장엄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조선의 왕이 친히 받들던 종묘 제례는 당대 예술적 역량이 집대성되었다. 종묘는 지난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지정되었으며 2001년 5월에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결작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종묘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종묘 시민공원 내 교육홍보센터를 설립하고 관람객에게 충분한 사전정보와 적절한 관람지침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종묘대제 거행과 함께 국왕 종묘 행차를 재현하여 일반 관광객의 참여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직단(社稷壇)은 토지와 곡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서 중국 고대부터 내려온 좌묘우사(左廟右社)의 도시 원칙에 따라 서쪽에 배치되었다. 농업이 기본산업이었던 조선시대에는 매우 신성한 곳이었으나 지금은 공원으로 남아있다.

왕비가 아니었던 왕의 생모를 모시는 사당으로서 토지를 관리하며 제사를 모시는 곳도 궁이라고 칭하였다. 육상궁(毓祥宮), 저경궁(儲慶宮), 대빈궁(大嬪宮), 연호궁(延祐宮), 선희궁(宣禧宮), 경우궁(景祐宮), 덕안궁(德安宮)을 모두 합쳐 칠궁(七宮)이라 부르며 현재 청와대 서편에 남아있다.

원구단(園丘壇)은 고종이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드리고 황제에 즉위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1913년 일제는 원구단을 헐고 그 자리에 철도호텔을 세웠으며, 철도호텔은 그 뒤 조선호텔이 되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원구단 뒤편에 세웠던 황궁우(皇穹宇)와 고종 즉위 40년을 기념하여 세웠던 석고(石鼓)가 현재 남아있다.

북촌(北村)은 과거 조선시대 운종가와 청계천을 중심으로 북쪽 구역을 말하며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를 갖춘 명당자리였다. 이곳에는 왕과 고관대작들, 양반

들이 모여 살았다. 현재 북촌지역에는 총900여 채가 넘는 전통한옥이 밀집해 있으며 전통적인 골목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북촌문화센터와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전통 한옥생활과 우리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현재의 청와대는 경복궁의 옛 후원에 해당하는 영역이었다. 고종은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神武門) 밖으로 크게 후원을 설치하였다. 경무대(景武臺)는 왕이 친히 군사훈련을 점검하기도 하고 연회를 베풀기도 한 곳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광화문 안에 지으면서 총독 관저를 신무문밖 경복궁 후원에 설치하였다. 총독 관저는 이승만 대통령 때 대통령 관저로 쓰이면서 이름이 경무대로 바뀌었다가 4·19 이후 청와대로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흔히 북악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청와대 뒷산 백악(白岳)은 서울을 직접 품고 있는 서울의 주산이다. 북악스카이웨이는 북한산의 능선을 끼고 동북쪽으로 19km에 달하는 관광도로로서 서울의 내사산(內四山)인 백악(白岳), 타락(醴酪), 인왕(仁王), 목멱산(木覓山, 지금의 남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와 서울 도심의 조망하기 좋은 지점으로서 연계코스로 개발할 수 있다.

과거 조선시대 서울의 내사산을 따라 성곽을 쌓은 것이 도성(都城)이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도성 안이 바로 서울이었다. 도성에는 동대문인 흥인지문(興仁之門), 서대문인 돈의문(敦義門), 남대문인 숭례문(崇禮門), 북대문인 숙정문(肅靖門) 등 4대문과 그 사이사이에 혜화문(惠化門), 소의문(昭義門), 광희문(光熙門), 창의문(彰義門)-일명 자하문(紫霞門) 등 사소문을 내었다. 서울 도성 성벽의 거의 대부분이 일제 때 훼손되거나 파괴되었으나, 남대문인 숭례문(崇禮門)과 동대문인 흥인지문(興仁之門)이 남아 서울 도성 성곽의 자취를 보여주고 있다.

청계천(淸溪川)은 서울의 내수로서 중랑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흘러든다. 청계천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이 왕정(王政)을 펼친 정치적인 공간으로서 태종과 세종, 영조는 개천 준설과 정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청계천은 서울의 도시형태를 구성하는 중심축으로서 청계천을 따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생겨나고 시전(市廛)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전후 청계천은 빈곤과 불결의 상징으로 근대화, 산업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복개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복개도로와 고가도로의 모습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계천 복원사업은 광통교, 수표교 등 옛 석교를 복원하고 청계천 다리밟기, 연날리기, 연등행사 등 전통문화를 재현할 예정이다.

## 4. 전통문화예술과 연계방안

### 가. 궁중 문화예술 공연상품

정동극장 전통예술무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악을 공연하고 있으며 무용과 기악, 소리, 타악 등 국악 전 장르의 하이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정동극장 전속예술단은 궁중무용에서 민속농악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예술의 전반적인 장르를 가지고 상설 국악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한국관광공사 대상, 2001년 외국인 대상 100대 관광거리로 선정된 바 있다.

우리 전통예술 가운데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궁중 무용인 정재(呈才)는 오늘날까지 무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귀중한 고문헌들이 보존되어 왔다. 정재는 우리 전통음악의 특징인 악(樂)·가(歌)·무(舞) 삼위일체를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은 2004년 정재제전 “정재, 궁중무용의 원류를 찾아서”를 통해 해설이 있는 궁중무용 정재공연을 마련한 바 있다.

운현궁(雲峴宮)은 서울특별시 사적 제257호로서 종로구 운니동에 위치하고 있다. 운현궁은 조선조 제26대 임금인 고종의 잠저(潛邸)이며 흥선대원군의 사저로서 대원군의 정치활동 근거지로서 유서 깊은 곳이다. 운현궁에서는 왕비 간택의식, 고종·명성후 가례, 어린이 과거제, 명인·명창 공연, 한시대회, 다례, 풍류음악, 궁중무용, 궁중복식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삼청각(三淸閣)은 1972년에 준공되었으며 최근 서울시가 인수하여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명인·명무들의 공연, 다례, 규방공예, 가야금, 판소리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한식당, 전통찻집, 전통객관, 야외놀이마당 등 복합적인 전통문화공간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집(Korea House)은 조선시대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의 사저터로 1980년 경복궁의 자경전을 본떠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신응수가 지은 전통한옥 건물이다. 조선시대 진찬의례, 진연의례, 궁중음식발기,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문헌을 토대로 조리한 궁중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속극장에서는 가인전목단, 봉산탈춤, 살풀이춤, 부채춤, 판소리, 시나위합주, 사물놀이 등 전통예술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1982년부터는 한국의 집 안마당에서 전통혼례를 재현하고 있다.



## 나. 궁중 음식과 복식 체험

사단법인 궁중음식연구원은 궁중음식과 향토음식을 전승 보호하여 한국의 음식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1971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종로구 원서동에 위치하고 있다. 황혜성 이사장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된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보유자이며, 한복려 원장은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보유자 후보로서 MBC 드라마 <대장금>의 궁중음식을 자문한 바 있다. 전통궁중음식점 ‘필경재’는 원래 세종대왕의 5남인 광평대군의 증손 정안부정공 이천수가 성종 때 건립한 한옥으로 전통건조물 1호로 지정된 유서 깊은 곳이다. ‘필경재’는 한국적인 전통미를 간직한 전통가옥으로서 왕이 하사한 여러 교지와 고미술품들을 직접 볼 수 있으며 특별한 궁중요리를 맛볼 수 있다. 한국궁중복식연구원은 전통복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특히 궁중의 왕실과 백관, 내외명부, 사대부가에서 입었던 복식을 연구 고증하고 있다. 조선왕조 사대부가 전통혼례 복식 패션쇼, APEC 관광장관회의 궁중복식 패션쇼, 제53차 FIFA 총회 궁중복식 패션쇼 등 여러 전시회와 패션쇼를 개최하여 화려하고 위엄 있는 조선시대 궁중 복식을 소개해 오고 있다.

<표4-5> 전통문화예술 연계자원

|           |  |
|-----------|--|
| 궁중 · 전통예술 | 정동극장,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호암아트홀, 난타극장, 도깨비스톱, 쉼라톤워커히, 운현궁, 삼청각, 한국의집, 한국문화의집, 산촌, 가야금홀, 서울놀이마당, 예술의 전당, KBS 국악단 등 |
| 궁중 · 전통음식 | 궁중음식연구원, 전통병과교육원, 궁중음식전문점 ‘지화자’(무형문화재), 한국전통음식연구소, 한국의집, 필경재 등   |
| 궁중 · 전통문화 | 명원문화재단(궁중다례), 북촌문화센터, 한옥체험관, 가회박물관, 남산골한옥마을, 한국의집, 한국문화의집, 운현궁 등   |
| 전시관 · 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궁중유물전시관, 서울역사박물관, 덕수궁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떡 · 부엌살림박물관 등  |

## 5. 관광마케팅 개선방안

### 가. 시장 차별화 방안

#### 1)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궁궐 관람인원에 관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관람객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14.7%로서 궁궐 관람객의 거의 대부분이 내국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5대 궁궐이 국제적인 관광명소이자 우리나라 대표 관광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시장에 대한 조사연구와 이들 외국인 관광객 시장 욕구에 부응하는 상품 개발 전략이 요구된다.

지난 2003년은 이라크 전쟁과 SARS의 영향으로 인해 총4,753,604명의 외래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문화관광부, 2004). 방문 목적별로 볼 때 관광 목적의 방문객은 전체 방한 외래객의 67.7%를 차지하였으며 업무 목적의 방문객은 전체 방한 외래객의 4.9%를 차지하였다. 관광 목적의 방문객은 전년 대비 16.3%가 감소한데 반해 업무 목적의 방문객은 2.7%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방한 비율이 가장 높은 추세이며 외래객의 평균 체재기간은 약6.2박으로 전년(5.4박)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지역별 외래객 방한 동향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전체 외래객의 71.4%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주 10.6%, 구주 10.1%, 대양주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관광객 입국 상위 5개국은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대만 등이며 이들 나라로부터 입국한 방문객은 전체의 6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2003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70.1%), 싱가포르(65.1%), 호주(58.5%), 프랑스(55.4%), 캐나다(54.1%), 독일(51.3%) 등 동남아시아와 유럽에 거주하는 외래관광객의 고궁 방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44.6%)과 일본(22.0%), 대만(28.5%)에 거주하는 외래관광객의 고궁 방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방한 외래객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관광객의 궁궐 관광상품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 동경의 황거나 중국 북경의 자금성과는 다른 조선 궁궐의 독특한 매력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체계적인 안내해설과 기반시설 확충, 궁중 문화체험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

## 2) 세부 목표시장 설정

궁궐 관광상품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편적인 인식과 인지도 개선을 위해 특정 목표시장을 한정하기 보다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에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시장을 세분화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세부 목표시장을 설정하여 이들 수요자 욕구에 맞는 관광상품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회의 참가자를 비롯한 비즈니스 여행자 시장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홍보 효과가 높은 관광시장으로서 이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여행자는 정기 사업목적 여행자(regular business travel), 국제회의 및 학회 참가자(meetings, conventions & congresses), 인센티브 여행자(incentive travel)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Mill & Morrison, 1998). 비즈니스 여행자는 일반 여가 휴양 목적의 관광객보다 항공, 렌트카, 호텔을 이용할 확률이 높으며 시설과 서비스의 편의와 질을 중요시 한다. 비즈니스 여행자는 시간에 보다 민감하며 비용(가격)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반 관광객에 비해 여행경험이 풍부하고 관광욕구도 높은 편이다. 비즈니스 여행자는 주로 고소득층의 전문직이나 관리직 종사자로서 35세~44세 연령의 남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 비즈니스 여행자와 자녀를 동반하는 비즈니스 여행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3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또는 전문활동 목적의 외래관광객 거주국은 독일(73.7%), 러시아(65.6%), 프랑스(65.2%), 미국(62.6%), 중국(58.3%), 캐나다(57.8%), 영국(56.6%), 호주(4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과반수 이상(56.3%)은 패키지 보다는 개별 여행을 선호하며 우리나라에 머무는 평균 체재기간이 7.5박으로 전체 평균 6.3박보다 다소 길고 호텔을 이용하는 비율이 81.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또는 전문활동 목적의 외래관광객은 총 여행 경비(US\$1,416), 숙박비(US\$591), 쇼핑비(US\$277) 지출이 다른 목적의 외래관광객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 또는 전문활동 목적의 외래관광객 거의 대부분(86.1%)이 서울을 방문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궁 방문 비율은 26.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들 세부 시장을 목표로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의 편의와 질을 개선하고 비교적 고가(高價)의 고급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 나. 상품 포지셔닝(Product Positioning)

### 1) 궁궐의 관광이미지 창출

현재 우리나라 5대 궁궐의 문화유산과 관련 관광상품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도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수요자의 인식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자리 매김(product positioning), 즉 위상 정립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품의 자리 매김은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특정 상품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수요자의 인식 속에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다. 상품에 대한 위상 혹은 자리를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메커니즘은 상품에 대한 이미지(image)를 창출하는 것이다. 관광이미지는 표적시장에 대하여 관광상품이 갖고 있는 차별성을 강조하여 다른 상품과 상대적 비교우위를 확보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 궁궐에 대한 관광객의 지각이나 이미지를 확립하거나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포지셔닝(objective positioning)과 주관적인 포지셔닝(subjective positioning)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객관적인 포지셔닝이란 특정 목표시장이나 전체 시장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이나 서비스, 상품을 개선하는 것으로 수요자 시장과 상품을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반면 주관적인 포지셔닝이란 제공되는 서비스와 상품의 물리적 특성은 변화시키지 않고 잠재 수요자 인식 내면의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강화,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대체로 주관적인 포지셔닝은 객관적인 포지셔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수행되며 잠재 수요자의 잘못된 인식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 캠페인이나 감성적인 메시지 홍보는 이러한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 궁궐은 흥미로운 볼거리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단조로우며 외국의 유명 왕궁과 비교할 때 특별한 차별성이나 매력이 없는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궁궐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매력 있는 관광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문 안내원, 해설매체, 이벤트 및 프로그램, 홍보기념품, 편의시설, 접근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와 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수요자의 인식 속에 우리나라 궁궐 문화유산을 가치 높은 매력 자원으로 차별화시키는 포지셔닝 전략이다. 조선의 5대 궁궐은 당대 문화역량과 정신이 만들어낸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주변 자연과 가장 뛰어난 조화를 이룬 대표 관광자원이다.

## 2) 가격과 품질에 의한 포지셔닝

관광상품의 포지셔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표적시장에 대응한 상품의 포지셔닝, 상품 혜택에 의한 포지셔닝, 가격과 품질에 의한 포지셔닝, 상품 종류에 관련한 포지셔닝, 경쟁업체와 대비한 포지셔닝 등이 그 예이다. 궁궐이라는 가치 높은 문화유산에 기반한 관광상품은 이러한 방법들 가운데 특히 가격과 품질에 의한 포지셔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우리나라 궁궐 관람요금은 국내 다른 문화활동이나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저렴한 수준이며 중저가(中低價) 패키지 관광상품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궁중 문화의 가치와 품격을 고려할 때 보다 높은 가격과 수준 높은 품질의 관광상품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가격과 품질에 의한 상품 포지셔닝은 대체로 실행하기가 용이하며 고가(高價)의 호화스러움과 저가(低價)의 검소함과 같은 양극 지점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한편 관광상품의 가격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돈의 양을 의미한다. 관광상품의 가격 결정은 업체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드는 비용, 해당 업체에게 요구되는 수익,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 유사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격 결정 전략은 관광상품이 의도하고 있는 세부 목표 시장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 도심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을 포함한 5대 궁궐이 남아있다. 경복궁은 조선 제일의 궁궐로서 과거 한양의 도시계획과 궁궐 건축의 전모를 보여주는 대표 문화유산이다. 또한 창덕궁은 가장 오랜 기간 왕이 거처했던 궁궐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룬 조선 궁궐 건축의 비정형적 조형미를 대표하는 세계 문화유산이다. 창덕궁 후원은 다양한 정자, 연못, 수목, 피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5대 궁궐 가운데 경복궁과 창덕궁은 비교적 높은 가격과 품질 수준으로 관광상품을 차별화하고 국제회의 참가자와 같은 고급 시장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볼 수 있다. 반면 창경궁과 덕수궁, 경희궁은 원형의 훼손과 왜곡이 심하게 일어난 궁궐로서 문화재의 보존가치나 관광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창경궁과 덕수궁, 경희궁은 경복궁과 창덕궁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적인 관광지로서 합리적인 가격 수준의 관광상품과 개방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 다. 홍보 효율화 방안

여러 가지 유형의 홍보 효과는 상품의 수명 주기(product life cycle)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관광상품의 초기 도입 단계의 경우 잠재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위주의 홍보가 중요하다. 관광상품의 성장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설득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성숙 단계에서는 관광객의 과거 상품 경험을 연상시키는 홍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홍보 전략은 관광객의 상품 구매 과정 단계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여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궁궐의 이미지와 관광상품의 홍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국내·외 유명 TV, 여행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주요 언론과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주요 언론인, 기자, 작가, 여행업자 등을 초청하여 궁궐 팸-투어나 문화예술 공연, 영상물 시사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궁궐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 유네스코 등 유관기관의 공동 홍보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4-6> 목표 대상별 홍보 활동 예시

| 잠재 관광객  | 여행사 (중개업체)  |
|---|---|
| 소비자 대상 궁궐 여행 설명회, 쇼(show)<br>우편 및 팩스를 통한 직접 광고<br>궁궐 안내정보 데스크 설치<br>대중매체(미디어)를 통한 광고<br>텔레마케팅(telemarketing)<br>궁궐 여행 비디오 및 영상물 제작<br>인터넷 웹 사이트(WWW) 홍보 | 부수적인 홍보물(행사 일정 캘린더, 지도 등)<br>우편 및 팩스를 통한 직접 광고<br>전시 자료(지도, 포스터, 브로셔 등)<br>팸(familiarization) 투어 초청<br>우수 여행사 인증 및 포상제도<br>관광무역박람회, 쇼, 전시회, 워크숍, 세미나<br>인터넷 웹 사이트(WWW) 홍보 |
| 방문 경험이 있는 관광객   | 대중매체(미디어)   |
|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직접 광고<br>우수 고객 회원제도 도입<br>궁궐에 관한 뉴스레터 발송<br>텔레마케팅(telemarketing)<br>인터넷 웹 사이트(WWW) 홍보   | 여행 기사/편집자 기고<br>여행 전문 작가 대상 팸 투어 초청<br>궁궐에 관한 뉴스레터 발송<br>기자 간담회 및 언론 발표<br>인터넷 웹 사이트(WWW) 홍보  |
| 현장 방문 관광객   | 지역사회  |
| 접대 및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br>리셉션 및 환대 서비스<br>궁궐 관련 안내지도 및 서적<br>궁궐 관람 안내정보 센터  | 지역주민 인식 제고 프로그램<br>궁궐에 관한 뉴스레터 발송<br>우수 서비스에 대한 포상제도<br>인터넷 웹 사이트(WWW) 홍보   |

## 제5장 결 론

### 1. 향후 추진방안

본 연구에서는 5대 궁궐의 관광자원화 및 체험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대안으로 조선 궁중연회·음식문화 재현행사, 궁중 문화예술 공연전시, 궁중 생활상 재현전시, 특별 관람코스 및 연계코스 개발, 관광이미지 및 브랜드 개발, 방문객센터 설립, 언론과 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궁궐이 국가지정 문화재이며 현 정부 조직상 문화재청이 궁궐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의 제시된 사업들 대부분이 문화재청 주체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 내 전담부서인 궁능활용과는 관광·홍보·교육·기획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이 거의 전무하고 활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 도성(都城)과 5대궁의 통합적인 관리운영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관광자원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부는 우선 지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고궁 관광자원화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 체계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궁성문 개폐 및 수문장 교대의식은 일반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큰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왕과 왕실의 관점에서 벗어나 조선 궁중 문화를 창조했던 건축가, 예술가, 장인, 궁녀, 관원, 내시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상을 조명하는 문화관광 이벤트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부는 궁중의례 재현행사 전문 민간단체 및 관련 기관, 궁중 문화예술 전문 공연단체, 궁중 음식 및 복식 전수·연구기관의 설립과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궁중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우수 여행상품이나 관광기념품을 선정하여 해당 업체나 관련 기관에게 인증 브랜드를 부여하고 국가 차원의 홍보 및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궁궐의 관광이미지를 창출하고 이를 대외에 널리 홍보하는 일은 중앙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5대 궁궐의 효율적인 홍보와 관광마케팅을 위해 문화재청,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유네스코,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 등 여러 유관기관과 공동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현재 경희궁을 제외한 4대 궁궐과 종묘의 문화재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엄격히 보호하고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궁궐 관람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궁 문화재안내원 제도를 보다 체계화하여 전문적인 해설인력을 추가 양성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안내판과 편의시설 디자인 개선은 궁궐의 관광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고급화된 안내브로셔와 영상홍보물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궁궐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해외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 유명 박물관 순회 전시회나 한·중·일 궁중 문화 교류전시회를 추진해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5대궁과 종묘, 사직, 도성, 내사산, 북촌, 칠궁, 원구단, 정동 등을 연계한 시티투어코스를 개발하고 수도 서울의 역사와 조선 궁중 문화 체험에 관한 관광홍보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묘공원 주변의 경관 개선과 교육홍보센터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서울도성(都城)의 유적 보존과 궁궐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시민단체는 궁궐 전문가이드 양성, 일반인 인식 교육, 홍보 캠페인, 자원봉사 모니터링, 각종 보호활동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표4-7> 주체별 사업 추진방안

| 주체        | 추진사업   | 구분               |
|-----------|--|------------------|
| 문화관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고궁 관광자원화 사업 평가 및 개선</li> <li>◦ 궁궐을 활용한 국가 관광이미지 해외 홍보</li> <li>◦ 궁중 문화예술 전문단체 및 기관 지원 육성</li> <li>◦ 우수 여행상품 및 관광기념품 포상 인증제도</li> </ul> | ◎<br>◎<br>○<br>○ |
| 문화재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궐 문화재 보존 및 방문자 관리체계 확립</li> <li>◦ 고궁 문화재안내원 제도 정착 및 활성화</li> <li>◦ 문화재안내판 및 편의시설 디자인 개선</li> <li>◦ 관광안내 브로셔 및 홍보영상물 개발 투자</li> </ul>     | ◎<br>◎<br>○<br>○ |
| 서울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궐 문화유산을 연계한 시티투어코스 개발</li> <li>◦ 서울의 역사와 조선 궁중 문화에 관한 홍보</li> <li>◦ 역사문화경관 보호를 위한 법규와 지침 개선</li> </ul>                                   | ◎<br>◎<br>○      |
| 한국관광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언론과 매체, 인터넷을 통한 해외 홍보</li> <li>◦ 해외 언론인, 기자, 여행업자 초청 팸 투어 실시</li> </ul>  | ◎<br>○           |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팸 투어 공동 개최, 여행업계 워크숍 및 세미나</li> <li>◦ 궁중 문화행사 및 이벤트 관련 정보 업계 제공</li> </ul>  | ◎<br>○           |

(참고) 사업 구분: ◎ 우선사업, ○ 보완사업



## 2. 결론 및 제언

궁궐은 관광자원으로서 매력과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선 궁중 문화와 역사, 생활상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복궁은 조선 제일의 궁궐로서 현재 조성 중인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을 활용하여 궁궐의 배치와 구성을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모형을 전시할 수 있다. 또한 경복궁은 세종대왕 즉위식과 같은 격조 높은 국가오례 재현을 전문화하고 왕과 왕실 뿐만 아니라 궁녀, 관원, 노복, 내시, 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궁중 생활상을 이해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창덕궁은 보존 우선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바람직하며 대조전과 회정당, 연경당, 낙선재 일곽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재현전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창덕궁과 더불어 동궐을 형성하였던 창경궁은 궁중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궁중 연회와 문화예술 공연을 감상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궁궐 원형의 변형과 왜곡이 심하게 일어났던 덕수궁은 정동 일대와 원구단 등 주변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이 필요하다. 경희궁은 현존하는 5대 궁궐 가운데 가장 심하게 훼손된 궁궐로서 문화재 복원과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며 신규 복원된 전각 건물과 서울역사박물관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볼 수 있다.

궁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은 우리나라 궁궐 문화유산의 가치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국가이미지와 관광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방한 외래객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선 궁궐의 차별성과 매력을 강조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와 고부가가치 수익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조선의 5대 궁궐 가운데 경복궁과 창덕궁은 비교적 높은 가격과 품질 수준으로 관광상품을 차별화하고 국제회의 참가자와 같은 고급 시장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궁궐은 흥미로운 볼거리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단순하며 외국 유명 왕궁과 비교할 때 차별성이나 독특한 매력이 없는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의 인식을 개선하고 매력 있는 관광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언론과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 팸 투어 초청, 공연전시 이벤트, 인터넷 웹 사이트 구축, 유관기관 공동 마케팅 활동 등 홍보 사업을 전략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ICOMOS(1993). Tourism at World Heritage Cultural Sites.
- World Tourism Organization(2001). Cultural Heritage and Tourism Development.
- World Tourism Organization(2004). Sustainable Tourism in Protected Areas: Guidelines for Planning and Management.
- 권병철 · 조성진 역(2003). Marketing & Selling the Travel Product. 한울출판사.
- 김동현(2002). 서울의 궁궐건축. (주)시공사 · 시공아트.
- 문화재청(2000). 21세기 문화재청의 정책방향 연구.
- 문화재청(2002).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 박상진(2001). 궁궐의 우리나라무. 놀와.
- 서울대학교 규장각(2000). 규장각 명품도록.
- 서울대학교 규장각(2000). 정조, 그 시대와 문화.
- 서울대학교 규장각(2003). 규장각 소장 의례 해제집.
- 신명호(1998). 조선의 왕. 가람기획.
- 신명호(2002).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 도서출판 돌베개.
- 신명호(2004). 궁녀. (주)시공사.
- 신병주(2001).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효형출판사.
- 이강근(1991). 한국의 궁궐. 대원사.
- 이덕수(2004). 新궁궐기행. 대원사.
- 이미혜 · 최승희(1999). 관광상품론. 대왕사.
- 이원옥(1999).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상품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 장경희(2004).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왕궁의 보물. 예맥출판사.
- 전병팔(2002). 자금성을 걸으며 중국을 본다. 청년정신사.
- 청동말굽(2003). 경복궁에서의 왕의 하루. (주)문학동네.
- 한국관광공사(200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5).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 방안.
- 홍순민(1999). 우리궁궐이야기. 청년사.

## Abstract

The five major royal palaces of the Chosun Dynasty have been preserved in Seoul. The palaces built in the Chosun Dynasty include: Gyeongbokgung Palace, Changdeokgung Palace, Changgyeonggung Palace, Deoksugung Palace, and Gyeonghuigung Palace. Seoul is a propitious site with harmonious mountains and water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oriental geography. The royal palaces of the Chosun Dynasty represent the 600-year history of Seoul. The palaces are the best cultural heritage of Korea. The palaces are very attractive and valuable as tourism resources. The architecture of the royal palaces was built with the best construction materials and technology of the age. The palaces were actually a small city where people of various social standings and classes such as court ladies, servants, and government officials existed and lived as well as the king and royal family. The royal palaces, tomb, and ancestral shrines of the king and queen were the best architecture. A variety of ceremonies, dances, and music conducted here were contemporary culture and art. However, most of the palace ceremonies, which have been promoted as the royal palace tourism project since 1995, have not been regularly held. They have not been developed as tourism products which represent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Also, the living pattern of various classes such as the architects, artists, workman, court ladies, and servants who created the royal court's culture needs to be considered as being contrary to the aspects of the king and the royal family. The royal palaces should be utilized as sites where people can understand the history, culture and life of the Chosun Dynasty and can directly experience them.

Gyeongbokgung Palace is the best palace of the Chosun Dynasty and is located nest to Mt. Baek-Ak, the main mountain of Seoul. It has cultural heritage which shows a city plan of the past Hanyang and overall size, stationing, structure, and formation of the Korean palace architecture. There is a need to fabricate and display the whole model of the palace in the Chosun Royal Palace History Museum, which is currently being constructed in Gyeongbokgung Palace. Also, the ceremony, music, and food used in Gyeonghweru feast of Gyeongbokgung Palace represent the feast culture of the Chosun Dynasty.

Gyeongbokgung Palace could specialize the national noble ceremony events like a coronation ceremony of King Sejong, and could develop the tourism products to experience the life styles of various classes such as the King, royal family, court ladies, servants, and workman. Changdeokgung Palace is the royal palace where the kings lived for the longest period among the royal palaces of the Chosun Dynasty. Changdeokgung Palace is the cultural heritage to represent the formless beauty of the Korean palace architecture, which is in harmony with nature. The back garden of Changdeokgung Palace also has various pavilions, pond, trees, and oddly-shaped stones. It is an internationally competitive tourism resource. Yeongyeongdang which represents the Yang-ban (nobility) culture of the Chosun Dynasty, and Hweejeongdang and Daejojeon which were the last living place of Emperor Sunjong can present and exhibit the trifling articles, furniture, books and pictures of the age and allow tourists to enter the inside of the old building.

Changgyeonggung Palace is the palace where the living culture and residential space of women were relatively developed. Changgyeonggung Palace could be utilized as the open space where people can experience the food culture of royal palaces through reconstructing the jar stand (Jangdokdae), cuisine (Sojubang) and the royal kitchen (Sooragan) based on the picture called 'Dongkweldo'. Also, it can specialize the Chosun Dynasty's royal feast event based on the historical ceremony principles and written materials. Deoksugung Palace could introduce a variety of events, such as the royal palace music festival, the king's portrait event, and the royal fashion and ornament experience. Also, Deoksugung Palace could develop a tour course to connect the surrounding resources of Jeongdong. Gyeonghuigung Palace was the most seriously damaged among the five royal palaces. Gyeonghuigung Palace could operate various experience programs such as the art of ceremonial tea-making, the royal plays, and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by utilizing a newly-reconstructed building.